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지난 한 해간 지켜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더욱 귀한 감사로 충만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11월 18일 (토) 제 1946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발행인 칼럼

고독한 10%, 풍성한 100%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파레토의 법칙이 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사회법칙으로서 “결과의 80%가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모든 분야에서 20%가 80%를 이끈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대체로 실제에서 검증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20%의 세일즈맨들이 80%의 보수를 팔고, 20%의 어부들이 80%의 고기를 잡으며 20%의 성도들이 80%의 헌금을 낸다는 것이다. 이 퍼센티지가 감사(感謝)의 영역에서는 다르다. 20%의 감사자들이 그렇지 않은 80%의 감사자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감사의 비율은 겨우 10%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열 명의 한센병 환자가 치유 받고 단 한 사람만 감사한 이야기를 통해 알려 주셨다. 예수님은 10%의 감사를 보시고 “아쉽지만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름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감사는 누가 대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감사는 반드시 각자가 해야 할 몫이다. 한센병 환자들은 같이 길을 가다가 치유의 기적을 10%

명이 동시에 체험했다. 그런데 한 명만 감사했다. 감사하러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고독했겠는가. 우리는 모두 인생 길을 걷다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올해도 그러하다. 그런데 나는 과연 감사하는 10%의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받고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90%에 묻혀있는 사람인가.

10%에 속했던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대단했다. “그들이 가다가 깨닫음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의 감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100%의 감사였다. 손양원 목사가님 이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을 잃고 장례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 두 명의 순교자를 주셨다며 10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셨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셔서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 주 예수께 감사” 그때 드린 순교 감사헌금이 만원, 그 당시 목사님의 사례비는 월 80원, 사례비의 100배가 넘는 헌금으로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셨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가 10%의 감사자에 속한다면 너무 좋겠는데 정작 드리는 감사가 받은 은혜에 턱없이 부족한 10%에 머문다면 이 어찌 진정한 감사라고 하겠는가. 사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감사는 10%도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장영준 목사님이 남긴 말씀 중에 “제대로”라는 말씀이 있다.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대로”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제대로”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었다. 묵화하면서 “제대로”라는 구절이 자주 떠오른다. 나는 과연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가.

우리 이민자들이 사는 나라는 청교도 신앙의 나라이다. 청교도들이 유럽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르게 된 그 당시 환경은 술한 위험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풍토병(風土病)과 향수병(鄉愁病)도 극심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공포와 불안에 떠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단 하나, 감사였다. 청교도는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청교도는 감사의 사람들이었다. 청교도를 필그림(Pilgrim), 순례자라고 부른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 길 중에 만난 하나님의 치유에 넘치게 감사했던 것처럼 그들의 순례길에 만난 하나님의 지기심과 도우심과 베푸심에 풍성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감사 불감증(不感症)에 걸린 이 시대에 사마리아인은 누구며 오늘의 청교도는 어디 있나? 많은 사람이 같이하지 않아 고독해도 우리가 10%의 감사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기왕이면 제대로 드리는 풍성한 100%의 감사자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감사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신영 (시인)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사계절의 색깔에서
오늘을 맞게 해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른 아침 '호'하고 토해낼 수 있는 숨과
'흡'하고 들이킬 수 있는 숨을 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당신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고백하는 지금 이 시간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복있는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 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밤이 되니 잠들게 하시고
아침 되니 눈뜨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신영 시인은 수필, 사진작가로 (뉴욕일보) (보스톤코리아)에 칼럼 연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워싱턴지부) 작가로 활동, (라디오코리아 뉴욕 FM 87.7 or FM 94.7HD3) 주일아침 방송(7-8Am), 에피포도예술과문학상, 대한민국문예진흥장작문학 대상 수상 외 다수, 작품으로 시집 (하늘) 수필집 (나는 촛콘이고 싶다) 한울사화집 (하늘 빛 풍경) 외 다수.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감사절 특별설교
권현천 목사



4면
청교도들의 연약한
이길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왕)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KIM Mission - 유비쿼터스 디아스포라 영상 선교 세미나

(Perspectives on the Global Christian Movement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퍼스펙티브스로 선교하는 사람들)

사역멘토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NJ 배다니교회 원로목사), 톰 맥그리거 목사 (Beeville, TX), 오장영 목사 (LW Comm. Church, LA), 손찬식 목사 (샌디에고 삼일교회), 김대영 목사 (여신 권영교회), 김용식 목사 (브라운, 선교교수), 임재량 목사 (토론토삼일교회, OMC서포), 김태숙 목사 (보령삼일교회)

대표 파송선교사 명예이사장 이사장 전임이사장



최관선 목사 (중앙시회), 전재형 목사 (김해시회), 이길호 목사 (국제민선교회), 김경환 목사 (US연방, 재물민), 김정용 박사 (캘리포니아), 임이근 장로 (스페인, 라스베이거스), 이원구 장로 (서울, 새문안교회, 신원재), 최도문 장로 (미국, 워싱턴),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이광현 장로 (NY), 강태광 장로 (NY), 황정규 안수집사 (전북 정읍), 이순진 장로 (미국, TX), 임소현 장로 (텍사스, 연방교회), 윤수현 장로 (샌디에고, TX), 강동철 안수집사 (Tennessee, Boston), 김호태 박사 (CSP, Tech, KCU)

부이사장 기도이사 기도이사 기도이사 기도이사



박한배 장로 (대구중앙침례교회), 윤천경 권사 (샌디에고, TX), 육진영 권사 (샌디에고, TX), 김정순 권사 (캘리포니아, MD), 도나 데턴 (뉴브리튼, TX)

[유비쿼터스 디아스포라 영상 선교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KIM Mission이 2023년 7월부터 새로운 시대적 선교전략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 선교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유비쿼터스 영상 세미나는 지난 4개월 간 11회에 걸쳐 매 주 토요일 아침마다 놀라운 은혜와 감동 가운데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2002년 봄부터 23년간 60차례의 미션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진행 보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수료자 4800여명 가운데 김미션과 함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Global Christian)으로 헌신한 평신도 동역자들과 지역교회 목사님들, 선교 학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매월 2차례 토요일 아침 때마다 새로운 선교현장 소식과 간증 그리고 퍼스펙티브 세미나 전략들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나눕니다. 우리 김미션은 이 영상 세미나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포럼과 네트워크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겸손히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모든 선교와 복음전파에 헌신하고 관심있으신 교회와 선교단체와 개인을 동역자님들에게 개방하기 원합니다. 이 영상 세미나는 언제나 동일한 구글 MEET 링크 <https://meet.google.com/eip-baby-jcf>를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클릭하시면 곧 바로 영상 세미나로 연결됩니다. 이 세미나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는 “민민공동의회”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변의 선교관심자들과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시작시간은 매 주 토요일 (오는 2023년 11월18일, 토) 미국 중부시간 아침7시 (동부시간 8시, 한국시간 밤 10시)이며, 영상은 시작 30분 전에 열려서 간단한 환경과 소개시간을 갖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자기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구글 MEET 영상 세미나로 이어지는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글로벌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유비쿼터스(Ubiquitous)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www.KIMMission.org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모든 동영상 강의 88강을 즉시 보고 들을 수 있음). 이 영상 세미나로 연결되는 위의 구글 MEET 링크 역시 우리 김미션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영상 세미나 안내를 통해 곧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Global Christian Movement 가 전 세계로 확산 될 수 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피터 엡너 Peter Wagner 박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

우리 김미션은 “세상 모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표 김경환 목사 (미국군군목예편-에리조나 주침례교도사역역임-현 미연방 배례랑스병원 재물민)과 모든 평신도 동역자들이 각 삶의 현장에서 일하며 자비량 사역을 원적으로 섬깁니다. 미주 전 지역 교회들과 전 세계 선교지에서, 세미나 혹은 선교 사경회로 주말 2-3일만에 마무리를 원하는 지역교회, 선교단체 혹은 작은 규모의 선교헌지 선교사님들의 모임이라도 있으면 직접 가서 자비량으로 섬겨드립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The noble man makes noble plans, and by noble deeds he stands!)” (이사야 32:8)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 연락처: 김 미션 미주본부 (626-354-2294), E-mail: 1020miracle@gmail.com

시론

감사의 첫걸음 - 종교개혁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미국인들은 11월을 감사의 달로 여긴다. 추수감사절이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에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감사가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고 감사가 적으면 그 반대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은 종교개혁이다. 묘하게도 종교개혁일은 감사의 달이 시작하기 바로 전날인 10월 31일이다. 이는 1517년 바로 그날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에 대해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날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봉화를 높이 치켜든 날이라 할 수 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Ad Fontes"(근본으로 돌아가자)였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을 외치면서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였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다섯 개 기둥이라고 불리었던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다. 첫째, 오직 성경(Sola Scriptura) :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은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볼 수 없게 하였다. 미사에 설교는 거의 없었고 대개 성찬식 중심의 예전이었다. 설교를 한다 하여도 일반교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설교였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겨주었다. 13세기에는 피에르 발도가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1382년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1406년에는 안 후스가 체코어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1522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성도들이 읽게 하였다. 이전에는 성경의 해석 권한이 교회, 특히 교황에게만 있었다.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받은 일반 교인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고 자기 나라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라.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였지만 그 영광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영광을 도둑질하였다. 존 칼빈은 "(당시 교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장을 당했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깊은 땅속 속에 방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어졌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주요한 목적으로 표명하는 자는 백 명 중의 한 명이 될까 말까 한다."고 하였다. 신부와 교황과 마리아와 수많은 성인들과 성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버렸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에서는 아예 "사람의 제 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못 박아 놓았다.

셋째,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 오직 은혜뿐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놓아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서로 각각의 고유한 개념이 있지만 상통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은혜를 믿었고, 믿음을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오직"이 빠졌다. 이 세 가지 외에 인간의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는 결과적으로 은혜나 믿음이나 그리스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 선행의 가치를 그만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선행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었다. 선행을 앞세운다면 구원받은 인간은 그만큼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은혜뿐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게 감사할 조건뿐이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이며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함을 깨우쳐주었다.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다시 명백하게 가르쳐주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진정한 감사의 첫 걸음인 것이다.

minkyungjob@gmail.com

이스라엘 상황에 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또 모든 민족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자



요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위기에 관해 대화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에 관한 목회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겠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하마스의 이런 끔찍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한다. 여성, 어린이, 노인을 살해하는 것은 지극히 야만적이다. 그리고 나는 적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방어할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지한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다.

거기에 더해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 규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제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가자 지구의 민간인 사상자의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팔레스타인인이 하마스과 동조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마스는 종종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억압적인 테러 국가이다. 하마스에 반대한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다. 우리는 그들과 여전히 특별한 연대를 나누고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추가 설명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 좋을 것이다.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특별한 중심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주

신 약속의 성취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새 언약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함께 구성된다. 로마서 9장 속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처럼, 그 누구도 단지 아브라함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근거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나는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믿음이 누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순간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내 설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또 모든 민족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과 아랍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크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자.

by Paul Carter, TGC

알림

다음 주 신문(11월25일 자)은 추수감사절 정기휴간일로 휴간하오니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감사절 특별설교

감사로 인생을 바꾼다
하박국3:16-18



권혁천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



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심판의 두려움 보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컸습니다. 심판과 고난을 다시 해석하니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도 감사로 해석해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올 해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에서 우리는 아직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와 믿음 생활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참혹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슴이 서늘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사건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내가 실패했을 때, 홀로 남겨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을 때, 내가 잃어버렸을 때, 내가 힘들어 탄식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 내 곁에 계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습니까?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아나요? -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이유도 해결의 방법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만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도 겪으셨습니다.

심사. 사실은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고난이 이루어야 할 구원을 완성하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고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 그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경험하는 고난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하고나면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읽은 시 하나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입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몇 해 전 러시아 항공우주국에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집에만 한 운석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주민들은 대피를 가고 야에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청년은 도리어 운석이 자기 집에 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운석은 신비한 우주의 조각이고 그것이 자기 집에 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러 자기 집을 방문 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집이 우주와 지구를 이어주는 신비한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이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운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청년처럼 자기 집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소동은 점차 가라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멋진 해석이 상황을 반전한 것이지요. 이처럼 제대로 된 해석은 인생도 바꿀 수 있다.

은 정치적으로는 패가 나뉘어 분쟁을 일삼았고, 사람들은 더욱 포악해지고 온갖 죄가 난무해 정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드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패역한 죄악을 그저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은 즉시 대답하십니다. '갈대야 사람을 일으켜 심판할 것이다.' 갈대야 사람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해 망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황한 하박국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좀 더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불의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명쾌하게 답하십니다.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의인은 그가 어떤 민족이든지 살 것이다.' 본문은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의 주된 식물인 무화과는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면 신선한 음료를 구할 길도, 겨울을 날 건 포도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도 소출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밭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며 기근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양도 소도 없으니 고기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박국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함3: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Paul Brand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이자 나병 전문가입니다. 어린 시절 인도 선교사였던 부모를 따라 의사가 되어 인도에서 20년 나병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미국 나병 연구소로 옮겨 30년을 나병을 연구하고 치료합니다. 나병, 한센씨병은 신경계에 침입한 박테리아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결국 신체의 부분이 절단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어느 날 고단한 여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밭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수많은 나병환자를 돌보다 결국 나병에 걸린 것인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어떤 부분이 감각을 잃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바늘로 다시 밭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그는 그 때의 경험으로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씁니다. 고통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지요. 인생의 성숙은 대부분 예상하지 못하게 엄습한 아픔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아픔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할 인생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을 많은 것을 우리는 아픔을 통해 알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내 괴로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성숙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속에

침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27: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이것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답을 하셨나요? 하박국의 질문에 그렇게 즉시, 분명히 답하시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외침에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질문에도 침묵하곤 하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지푸라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난 단 하나의 어떤 사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해서 뭘 얻느냐고요? 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얻는 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얻어도, 곁에 사람이 가득해도 불행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을 감사로 해석해 내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hyouk@msn.com

이름도 재미있는 하박국은 주전 6세기 초 유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당시는 신흥국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호전적인 지도자에 의해 영토를 넓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앗수르도 바벨론에 점령을 당했고 이집트도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던 남왕국 유다는 호시탐탐 위협을 당하는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정세라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데, 나라 안의 상황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자 하박국은 두려워했습니다. [함3: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뼈가 시리고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환경은 황무지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함3:17] 비록 무화과나

그런데 이어지는 하박국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함3: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27: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이것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답을 하셨나요? 하박국의 질문에 그렇게 즉시, 분명히 답하시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외침에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질문에도 침묵하곤 하

절망을 감사로 해석해 내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hyouk@msn.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8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48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총회일시:** 2024년 5월 21일(화) - 24일(금) (3박4일)
* 주제: "기억하고 기대하라"
- 총회장소:** Embassy Suite Burlingame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650)342-4600
- 등록비:** 총회 등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미화 USD)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1/31)	2차(2/29)	3차(3/31)	
2인1실(1인)	\$ 450	\$ 500	\$ 550	
2인1실부부	\$ 880	\$ 980	\$ 1,080	
1인1실	\$ 880	\$ 980	\$ 1,080	
원로/공로 목사	(2인 1실)	\$ 225	\$ 275	\$ 325
	(부부)	\$ 675	\$ 750	\$ 825

총회장: 김성국 목사 **준비위원장:** 민봉기 목사
서기: 유진상 목사 **준비위원회 서기:** 윤성환 목사
준비위원회 총무: 이수복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늙은 엄마의 반란

얼마 전, 밀라노에서 남쪽으로 40여 Km 떨어진 아름다운 마을 파비아(Pavia)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마 세계 최초로 매스컴에서 다룬 일이 아닐까 싶다. 내용은 75세 된 늙은 어머니가 두 아들을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소송 사건이다. 두

아들은 이미 나이가 첫째는 42살, 둘째는 40살인데도 독립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늙은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즐겼다고 한다. 자녀가 어릴 때는 당연히 돌보아주어야 하나 장년이 되고,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하는 데

도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75세나 된 늙은 엄마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다. 이 시대의 패털인지, 혹은 문화인지 모르나, 젊은이들 가운데는 부모의 집에 눌러앉아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한다.

“엄마가 내려주는 카페 맛은 최고예요.” “엄마가 해주는 파스타 요리는 그 어느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집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영악한 자녀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늙은 엄마들이 많다고 한다.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여자 친구와 폼파나 관계(동거하면서 결혼은 하지 않는)를 유지하는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늘어난다. 책임 질 필요가 없으니 선호하는 것 같다. 몇 주전, 여성으로 이태리 총리인

멜로니가 10년간의 동거를 끝낸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딸 하나를 두었는데, 동거남이 이태리 방송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 중에 음담패설을 막걸리 마시듯 함부로 해 대는 것이다. 동거녀가 총리여서 그 후원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맡았을 텐데 말이다. 그런 행동들이 구실수로 오르내리고 인기도 값아 먹게 되니 안 되겠다 싶었을 게다. 동거인이기에 헤어지는 것이 아주 간단한가 보다. 이제 끝이다. 한 마디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

남자는 당장 밥줄이 떨어지게 되어 몹시 당황하고 있다고--- 진중하지 못하고 졸짜거리더니 깨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무튼 늙은 엄마는 두 아들 뒷바라지가 너무 힘들니 독립하라고 여러 번 부탁하고 사정도 했다고 한다. 아마도 늙은

부모가 받는 연금으로 산 것 같다. 그래서 두 아들이 직장을 다니니 생활비 일부라도 지원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지면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실마 엄만 데 어찌겠어, 우리가 버틴다 해도---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나.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다.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싶은 늙은 엄마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걸었다. 어느 날 갑자기 재판 받으려 노는 통보를 받은 두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터! 밥 먹듯이 사기를 치는 사람은 검찰이 보낸 출두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만, 처음 그런 서류를 받는 사람은 밤잠을 설치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기도 한다. 아무튼 할머니의 적극적인 고소를 통해 재판이 열렸고, 늙은 판사는 동질감을 느꼈는지 엄마의 손을 들어주었

다. 판결은 금년 12월 18일까지 집을 나가라는 통보였다. 약 한달 반의 기간을 주었을 뿐이다. 두 아들의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판결인 셈이다. 그동안에 집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태리는 모든 것이 느껴지지 때문이다. 정 안되면 등산 도구를 사서 주변의 야산으로 올라가 텐트를 쳐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튼, 늙은 엄마의 승리는 전 세계의 마마보이들에게 혁명적 사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늙어가는 집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경종이 되었으면 싶다. 평생 고생하는 부모를 조금은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늙은 엄마의 반란이 웬지 통쾌하게 여겨진다. 나도 늙었기 때문일까? chiesadotcom@daum.net

기독교를 더 기이하게 만들자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부분을 타협하지 말라, 부드럽게 하지 말라, 정면으로 제대로 이야기하라.

지난 토요일에 나는 불신자들이 적지 않게 참석한 결혼식에서 설교했다. 나는 신랑 신부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 복음까지 전하는 성경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구절을 골랐다. 에베소서 5:22-33. 나는 신랑 신부에게 주례자로서 하기 쉽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바로 복종과 사랑이다. 동시에 긍정적인 말도 있다고 말했다.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때,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 사람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렇다. 나는 복종에 관해서 말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주제였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런 일이 꼭 자주 발생한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설교하다 보면 지금 우리 생각과 모순되고 이상해 보이는 부분을 성경 속에서 꼭 만나곤 한다. 전에는 그런 구절을 부드럽게 하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 나는 어려운 구절들로 곧장 달려간다.

나이가 들수록 기독교의 어려운 부분이 지렛대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굳이 어려운 주제를 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어려운 구절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여야 한다.

더 정직하다.

어려운 문제를 피하는 교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이젠 마치 고객을 유인하는 상술 같다. 성경 속 어려운 주제는 적지 않다. 따라서 교인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을 일부러 숨겼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솔직하게 알릴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라. 사도들은 적대적인 정중과의 의사소통에 매우 능통했다. 종종 그들은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으로 바로 이동했다. 그런 내용은 피하거나 부드럽게 페달을 밟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공개하는 것이 좋다.



더 힘 있다

어려운 주제의 공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필요한 대위법을 제공하는 지점이기 바로 성경 속 난제가 있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성경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한

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다. 따라서 어려운 구절일수록 피하기보다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과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교인들 사이의 긴장 지점은

무엇인가? 그 지점을 피하지 말라. 적극 끌어안라.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변화를 어떻게 이뤄내는지 보여주라.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삶과 사고 방식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

어려운 구절을 피하면서 복음

을 전달 수는 없다.

무엇보다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복음의 타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우리 모두와 모순된다(고전 1:18-25). 우리는 믿기 어려운 많은 내용을 믿는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성육신. 그의 죽음, 장사, 부활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다. 믿지 않는 귀에는 이 모든 게 이상하며,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부드럽게 바꿀 수 없다.

내 생각에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경향과 기독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응답을 요구한다. 말씀이 현대인의 감성과 모순될 때, 올바른 접근 방식은 모순의 왜곡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더 나은 말씀을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려운 부분을 부드럽게 하지 말라. 정면으로 제대로 이야기하라. 달려가라. 어려운 부분, 이상한 부분, 괴이한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 계시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더 나은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지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by Darryl Dash, TGC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3)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021112, estroscoe@yahoo.com 6050 Kirby Rd., Little Rock, AR 72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8200 Morris Rd., Lansdale, PA 19467</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다민족: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니. 유년. 종교교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608) 425-4579, www.bostonk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p>센터빌 한인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56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알킨사제자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501) 920-9049, www.jees.com 600 Kirby Ave., Little Rock, AR 72611</p>	<p>앵커리지 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함성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215) 442-0288, Fax: (215) 442-9037 706 Wilmer Rd., Horseshoe,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세백예배: 오전 5:30(화-토)</p> <p>Tel: (254) 335-1842(H), (254) 5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화-토)</p> <p>Tel: (508) 425-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세백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 536-6675, www.tacomapcc.org 9424 S. Yo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매년 가을마다 감사절기가 있어서, 강권적으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시는 영적으로 엄격한 축복이다. 금년에는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감사의 눈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고, 감사로 현실을 긍정하며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심으로 감사 드린다. 사람들은 각기 쓴 안경 렌즈의 색깔로 세상을 보게 된다.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은 온통 검게 보일 것이고,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파랗게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안경을 쓸 것인가? 감사의 신앙, 감사의 안경을 쓰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감사 가운데, 기쁨과 찬송이 넘치고, 마침내 삶을 살아갈 만한 귀한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 때문이다. 연약한 인생이 감사를 통과하게 될 때, 마침내 감사로 기적을 보는 복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선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원망 대신에 감사를 드러내신 것이다. 이처럼 감사는 믿음이다. 주님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가 가진 믿음만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는 만큼 마침내 하나님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2. 감사는 결단이다.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다. 다윗의 감사에도 그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의지적인 결단이 있음을 보게 된다.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의 굴속에서, 쫓기는 독안에 든 쥐처럼 오돌오돌 떨며 자신의 몸을 말기는 상황속에서도 그는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된 마음에 우울증, 허무와 공허함,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다윗이지만,

이때가 바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순간이 될 것이다.

3. 감사는 수용이다.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으며 고통의 깊은 밤을 보낼 때가 많았다. 그런데 그렇게 잠 못드는 그 밤을 지나면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더 나아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언한다.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자신의 영혼 밖에서 고통과 침체 속에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워내는 선언이다. 마치 차가운 겨울산에 낙오된 사람이, 잠들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잠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채근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결코 문제와 현실에 자신을 방임하여 두지 않고 깨어 경계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헤세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어떤 저주와 재앙의 자리에도 반드시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임을 고백하게 될 때,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다.

다윗은 거친 광야를 사자에 쫓기는 사슴처럼 살아가면서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였다.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의 고백이다. 흔히, 삶의 고단한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과 믿음, 말씀과 기도, 은혜가 무슨 도움이 되는가? 당장 내 지갑에 캐시 1불이라도 채워달라고 한다. 은혜의 힘과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일 따름이다. 세상천지에 은혜를 아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기 때문이다.

암수술을 한 어떤 성도에게 고통의 통증을 물어보았다.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수술후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이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 같은데 보다 상세하게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팔레스타인 분쟁

- 하버시티에서 Joseph

A: 과거 중동의 패권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뒤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지역을 영국이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 이곳에 사는 사람 중 대부분이 아랍인이었고 유대인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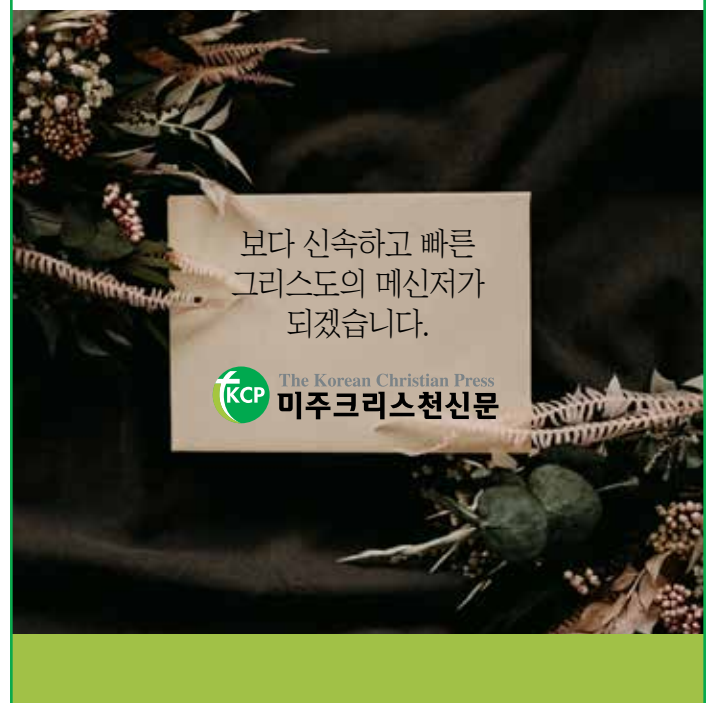
그 뒤 영국 외무장관 아서 J. 벨포어 (Arthur James Balfour)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모두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전쟁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아랍 측에게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맥Mahon 선언(Macmahon)을 하고 이스라엘에게는 팔레스타인에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벨포어 선언을 한 것입니다. 벨포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의 뒷 배경을 보면 영국이 유대 금융가의 큰 손, 당시 유럽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던 로스 차일드 가문에게서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정설입니다. 전쟁 3년째가 되어 가던 1917년에 영국은 전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정착지를 약속하면서 유대 금융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벨포어 선언 이후 나치의 600만 유대인 학살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는 유대인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도 우리가 살 땅과 우리의 조국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 민족 간의 긴장감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곧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폭력 사태로 이어졌고 영국의 통치에 대한 반감도 커졌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은 과거 3000년 전 다윗 시대부터 소유한 조상들의 고향이었지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도 1900년동안 지금까지 살았던 이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1947년 11월 UN은 아랍지구와 유대지구를 분할하는 UN 결의안 181호를 가결합니다. 팔레스타인에 두 국가를 세우는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국제공동 통치 구역으로 두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국제도시'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할안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받아들였지만, 아랍 측의 거부로 결국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1948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국 통치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철수했고, 그 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국가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는 즉시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을 각오한 채 비장하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고, 그 다음날 곧 바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어진 세 차례의 전쟁에서 강한 아랍 연합군을 상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해 국가를 보존하고 중동에서의 임지를 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항에서 두마리의 금붕어가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피가 터지게 싸웠는데 힘이 약한 한 마리 금붕어가 완전히 뺨아버리고 결국은 죽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싸움에 이긴 금붕어는 이제 어항 안의 모든 것이 내 것이요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이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금붕어가 썩어 부패하면서 냄새나고 물이 오염되어 자기도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교훈해줍니까? 공존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지만 나 혼자만 살겠다고 남을 죽이면 결국은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같이 공존하며 사는 것이 성경적 지혜요 성공의 길입니다.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감사의 강권(強勸)적인 은혜

- 믿음, 결단, 수용, 은혜 -

1. 감사는 믿음이다.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감사의 영적 DNA를 가지고 있음을 본다. 다니엘, 다윗, 요셉, 하박국, 바울 등등. 감사를 통과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참된 감사에는 믿음이 기초가 된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시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없고, 감사가 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감사와 믿음의 최고 표준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하면, 믿음의 감사를 떠올리게 된다. 예수님을 향해,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또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심에도 거듭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감사의 중심에 하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너무 선명하게 아셨던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눈앞에 부당한 심문, 모욕, 침 뱉음,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감사의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특히, 눈앞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다. 참된 믿음이다. 마치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듯이, 예수님을 향해 고난과 죽음이 서서히 다가옴을 느끼는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음은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점점 다가옴에도, 그 상황

그래서 자신 스스로 사자들 속에 던져진 먹잇감 같은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고, 원수들을 날카로운 칼같은 이와 혀를 가진 이들로 묘사하는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절망과 탄식을 멀리 던져 버린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도 왕궁을 빠져나오면 끝날 것 같았는데, 광야까지 뒤쫓아올 정도로 집요함과 악의 끈질김에 많이 놀랐을 법하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때에, 마음을 확정했노라며, 마음의 요동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의지적 결단을 의미한다.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극심한 재앙중에서도 하나님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정해버렸다는 것이다.

그의 확정된 마음이 무엇인가? 이 모든 재앙의 문제앞에서,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을 마치 벽에 못을 박듯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었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음을 말한다. 그러한 전적인 신뢰의 현상적 표현이 찬송과 감사이다. 감사하는 사람, 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더불어 찬송이 진실할 때, 그 모든 찬송의 주제는 감사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참된 감사를 위해서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C. S. Lewis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때때로 피조물을 홀로서 함으로서, 의욕 잃은 의무를 의지하나로 수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원수는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렇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의지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될 것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인 새벽까지 깨워낸다. 지극히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하루,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던 그날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날들이 전혀 즐겁지 않을 그런 하루가 시작되는 그날에, 깨우고 싶지 않은 하루를, 자신이 깨워버렸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자신의 고통스런 하루 하루의 삶을 그 시작부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해 버렸다는 것이다.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광야를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시작하자,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왔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시57:9)

우리 인생에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운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다윗처럼 피하고 싶은 생명의 날들을 내가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날들을 주님께 맡기게 된다. 고난의 풍랑속으로 깨워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새벽 아침이 찾아와 어쩔 수 없이 깨는 인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새벽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 하루의 힘든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용기와 담력을 더해 주시고, 마침내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이다.

4. 감사는 은혜다.

실패와 낙심, 근심과 한숨의 자리를 떨쳐, 감사와 찬송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항암치료의 어려움과 고통은 별것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수술을 받았고, 치료후에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있기에 감당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다름 아닌 '수술전 마음의 힘듦'이었다는 것이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들 앞에, 수술과 치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미리 당한 그 고통이 더 힘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말 큰 고통은, 현실보다 그 고통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염려, 걱정, 근심, 일어나지 않을 상상이 동원되어 몸도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삶의 현실이 여전할지라도, 영적인 은혜에 불들리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고의 힘과 능력은 은혜, 은혜, 은혜임을 말씀하는 것이다.

금년 추수감사시즌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고통스런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하게 된다. 고난의 풍랑속에 요동치는 마음을 주님께 정하고, 다윗처럼 현실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새벽을 힘있게 깨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무엇보다, 주의 은혜를 잊지않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놓임받고, 오히려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이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davidnjon@yahoo.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두 개의 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다. 두 개의 바다는 똑 같은 요단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갈릴리 해는 물이 맑고 고기도 많으며 강가에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바다다. 그러나 사해는 염분이 너무 많아 고기도 살 수 없고 새들도 오지 않고 어떤 생물도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다. 왜 같은 요단 강 물줄기에서 멀지 않은 두 개의 바다가 이렇게 차이를 낳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는 생명이 숨을 쉬는 바다가 되고 하나는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 그것은 강 때문도 아니고 토양 때문도 아니고 기후 때문도 아니다. 갈릴리는 강물을 받아

들이지만 그것을 가두어두지 않는다. 한 방울이 흘러 들어오면 반드시 한 방울이 흘러나간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똑 같이 반복된다. 그러나 사해는 들어오는 강물을 절대로 내어놓지 않는다. 받기는 하되 주는 것을 모른다. 순환의 이치를 거스르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돈(money)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말도 있다. 그것이 돈의 가치며 이이다. 움켜쥐고 쌓아두려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이치도 이와 다를 게 없다. 부족한 것이 없이 영원히 살고 싶어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영원한 소녀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오드리 헵번도,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다며 주먹 하나로 세계를 제

패했던 무하마드 알리도, 애플의 신화를 만든 스티브 잡스도, 재벌도, 코미디언도 왕복이 없는 인생열차에서 그 누구도 되돌아오지 못했다. 따라서 영원할 수 없는 인생의 참된 가치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서 더 커진다. 오늘날 최고의 의류로 손꼽히는 것은 단연 청바지일 것이다. 이 청바지에는 오무주의(五無主義)라는 사상이 언급되는데 즉 계급과 연령, 계절과 성별, 그리고 국경의 구별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청바지는 1873년 제작 특허를 받은 이래 35억 장 이상이 팔렸고 지금도 이념과 사상에 관계없이 5대양 6대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옷이 되었

다. 이런 청바지의 탄생에는 슬픈 비화가 있다. 천막 제조업자가 실패하여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다가 밧고 일어난 발명품이기 때문이다. 미국 서부에서 황금광산이 발견되어 많은 사람이 금을 캐러 샌프란시스코로 모여 들었고 지역이 온통 광부들이 거처하는 천막촌으로 변해 갈 때 독일 출신 이민자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천막 제작으로 독특히 재미를 보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군남 앞선업자가 찾아와 군대용 천막 10만 개를 납품하라는 제안을 했다. 뜻밖의 큰 행운을 잡은 스트라우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즉시 빚을 내어 공장을 증설하고 직원을 늘려 3개월 만에 10만 개의 천막을 납품했는데 '납품한 천막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전량이 반품되었다. 천막 전부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국방색이 아닌 청색으로 염색이 되었기 때문이다. 빛 독촉과 직원들이 월급을 내놓으라는 아우성 속에서 기도하던 스트라우스는 광산의 광부들이 모여 앉아 바지 깬 것을 보면서 '질긴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잘 헤아리지 않을 텐데'라고 중얼거리다 '내가 한 말은 주님이 주신 응답'이라며 무릎을 치고 일어나 반쯤된 골칫덩어리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어 광부들에게 팔아 대박을 쳤다.

한 개의 천막으로 수십 개의 바지를 만드는 것도 역시 나눔이 될 수 있다. 한 자리에 고정되어야 하는 천막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고 분주하게 오가는 천막은 곧 순환의 한 예가 된다. 세상은 아이러니 투성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연속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세계를 전운에 빠뜨렸다. 한 달이 넘어가면서 사상자가 급격히 늘어 날뿐 아니라 두 진영에 대한 호불호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그 땅, 가나안은 예사 지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월급을 내놓으라는 아우성 속에서 기도하던 스트라우스는 광산의 광부들이 모여 앉아 바지 깬 것을 보면서 '질긴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잘 헤아리지 않을 텐데'라고 중얼거리다 '내가 한 말은 주님이 주신 응답'이라며 무릎을 치고 일어나 반쯤된 골칫덩어리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어 광부들에게 팔아 대박을 쳤다.

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신 11:8-12)고 하신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다. 그 땅이 오늘 날 무엇 때문에 중동의 화약고가 되었고 두 개의 바다가 존재하는 지 분별할 지혜가 절대 필요한 이유다. 생명의 바다 갈릴리와 죽음의 바다 사해, 생과 사가 공존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봄에 두려움이 가중되는 이유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신11:13-17)고 경고하신 그 땅에 지금 두 신이 다투고 있다. 하나는 생명의 신이며 하나는 죽음이신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무슬림→무신론→크리스천' ...정치인이 결국 기독교를 택한 까닭은?

무슬림→무신론자→크리스천. 아얀 히르시 알리(54·여·사진) 전 네덜란드 하원의원이 지닌 '믿음의 이력'이다. 무슬림이었던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한답시고 이슬람교를 버리고 무신론 대열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런 그가 "자유를 뿌리를 기독교에서 엿봤다"고 고백하며 크리스천으로의 변신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14일 영국의 인터넷매체 언허드(Unherd)에 따르면 알리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슬람교에 의구심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슬람 교리를 배울수록 환멸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이슬람교의 설교자들은 알라를 위한 죽음이 최고의 축복이라 했다. 또 그들이 비난했던 '세상의 즐거움' 중에는 소설 읽기를 비롯해 음악 감상, 댄스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슬람교에 멀어졌던 알리는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1872~1970)의 강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접한 뒤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러셀은 종교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슬람 교리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무신론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슬람 세력과 무신론이 강대국 간의 확장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우오크(Woke) 사상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문제의 해법은 없을까. 알리는 기독교에서 답을 찾았다. 그는 "기독교가 인간의 생명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하는 가치와 전통의 기초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분열에 맞서는 교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툼 홀랜드의 책 도미니언에서 보여주듯 기독교는 과학과 보건, 학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정교한 사상과 제도들을 지지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이슬람교나 무신론보다 기독교가 두려움과 자기 회의의 황야를 헤쳐나가는 여정 속에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알리의 진솔한 고백에 "자매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며 아얀 히르시 알리도 구원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

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예루살렘 교계 지도자들 "올해 성탄절 조용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그들과 연대하는 뜻에서 교계 최대 행사인 성탄절 축제를 올해 자제하자고 제안했다. 예루살렘의 총대주교와 교회 수장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대립절과 성탄절엔 불필요한 축제 활동을 중단하고 고난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예루살렘에는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인 대립절과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15만여 명의 순례자가 몰려든다. 이에 맞춰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성지와 거리는 축제 분위기가 완연하다. 그러나 올해 분위기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계 지도자들은 "우리 사제들과 신자들은 이 기간에 사목 활동과 전례 거행에서 성탄절의 영적 의미에 더 집중하고, 이 전쟁과 그 결과로 영향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사랑하는 성지를 위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여성과 어린이 등 무고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더 많은 이들이 집을 잃어 절망에 빠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인도주의적 휴전을 거듭 요청했다. 앞서 요르단 교회협의회 지도자도 지난 5일 가지지구 내 전쟁 희생자와 연대하며 요르단 왕국이 올해 성탄절 축하 행사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기독교인에게는 기도와 예배 등 엄숙한 방식의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CNN "중 악성 댓글부대 동원해 부정적 여론 형성"

중국이 '악성 댓글부대'를 동원해 미국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이 미국을 겨

냥해 악성 온라인 게시물 등을 동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허위 정보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미국 법원 문서, 각종 소셜미디어(SNS) 기업의 공개 지표를 탐사한 결과 중국이 자국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위정보 유포의 구체적 방식으로는 '드래곤 브리지'(Dragonbridge) 또는 '스팸플라주'(Spamouflage)로 불리는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부대 투입이 거론됐다. 이들은 각종 SNS에 개설한 가짜 계정 수십만 개를 동원해 중국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NN은 "미국에 거주하는 활동가 첸포퐁이 2021년 반공주의와 관련한 쯘 행사를 개최했을 때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이 대규모로 몰려와 참가자를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며 "올해 초 미 국무부는 미국 내 반체제 인사를 겨냥한 허위 정보 작전을 펼친 혐의로 중국 관리 30명 이상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 법무부는 4월 중국 공안 수백 명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허위 정보 유포 캠페인을 포착해 이들 가운데 34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SNS 기업은 허위 계정을 대규모로 삭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8월 메타는 올해 2분기 드래곤브리지가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계정 약 8000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구글도 지난 몇 년간 관련 계정 10만개 이상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X(옛 트위터)도 그간 중국 국가 연계 계정 수십만 개를 차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인질협상 타결 근접... 며칠 내 발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에서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



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칼럼에서 협상을 요구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가 인용해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 대부분을 석방하는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관리는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하면 며칠 안에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그네이셔는 "하마스에 납치된 여성·어린이 인질을 집단 석방하면서 이스라엘에 투옥된 팔레스타인 여성·청소년을 풀어주는 방안이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며 "이스라엘은 인질 100명 석방을 원하지만, 초기 인원은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마스는 유대 안식일인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미사일을 발사한 뒤 육로와 공

중강습을 통해 하마스 대원들을 이스라엘 영토로 투입했다. 이스라엘은 납치된 인질 규모를 240~25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질 중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됐다. 약 35명의 외국인 인질 중 대부분은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태국인으로 파악됐다. 워싱턴포스트 칼럼에 인용된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는 "인질·포로 교환과 함께 5일간의 임시 휴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경우 팔레스타인 가지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질 석방 협상에 진척이 있다는 주장은 하마스 측에서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간부는 텔레그램에 낸 성명에서 "카타르의 형제들이 지난주 적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어린이 200명과 여성 7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포로들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거론된 석방 대상 이스라엘 인질은 최대 70명으로 전해졌다.

"사회 조화에 부정적" 네팔서도 사용 금지된 틱톡

네팔 정부가 "사회 조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다. BBC는 13일(현지시간) 네팔 정부가 내각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레카 샤르마 네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틱톡이 사회적 조화를 방해하고 가족 구조와 사회관계를 저해하는 콘텐츠들을 공유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네팔에서는 지난 4년 동안 틱톡 관련 사이버 범죄가 1600건 이상 발생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네팔 정부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에 관한 지침을 도입한 지 수일 만에 나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네팔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회사는 현지에서 사무실을 설립해야 한다. 정부 결정에 따라 틱톡 사용 금지의 기술적인 준비를 마친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치가 시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네팔 집권당인 네팔의회의당 간간 타파 대표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 같다"며 "정부는 사용 금지가 아닌 플랫폼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 외에도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 틱톡 규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0년 6월 틱톡을 비롯해 중국 애플리케이션 60여개의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에 대한 보안 문제가 그 이유였다. 올해 미국 몬태나주는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했으며, 영국은 행정부와 의회 네트워크에서 틱톡 접속을 차단했다.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 (6)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II. 청교도 교회언약 (Puritan Church Covenant) (2)

장로교 청교도들의 교회관은 모든 회중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지도자들을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각 지교회 위에 노회와 대회, 그리고 총회가 있어 계급적인 정치 체제를 가졌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교회의 회원이되었고, 유아세례를 받아야하며,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러한 국가적인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교회와 비슷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장로교회는 회중 교회 청교도 (분리파, 비분리파)가 주장하는 교회 언약을 채택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교회 언약 속에는 자발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자발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청교도 회중제도 (Congregationalism)는 모든 교회는 자발적인 언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위 기관이나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교회의 운영도 자발적인 언약으로 구성된 성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면 국가로부터 혹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는 안되었다.

영국에서 분리파 청교도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영국정부와 영국교회는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분리파 청교도들의 지도자인 헨리 배로우 (Henry Barrowe) 와 존 그린우드 (John Greenwood)는 1593년 처형되었다. 많은 분리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투옥되거나 심한 박해를 받아 영국에서는 그 힘을 잃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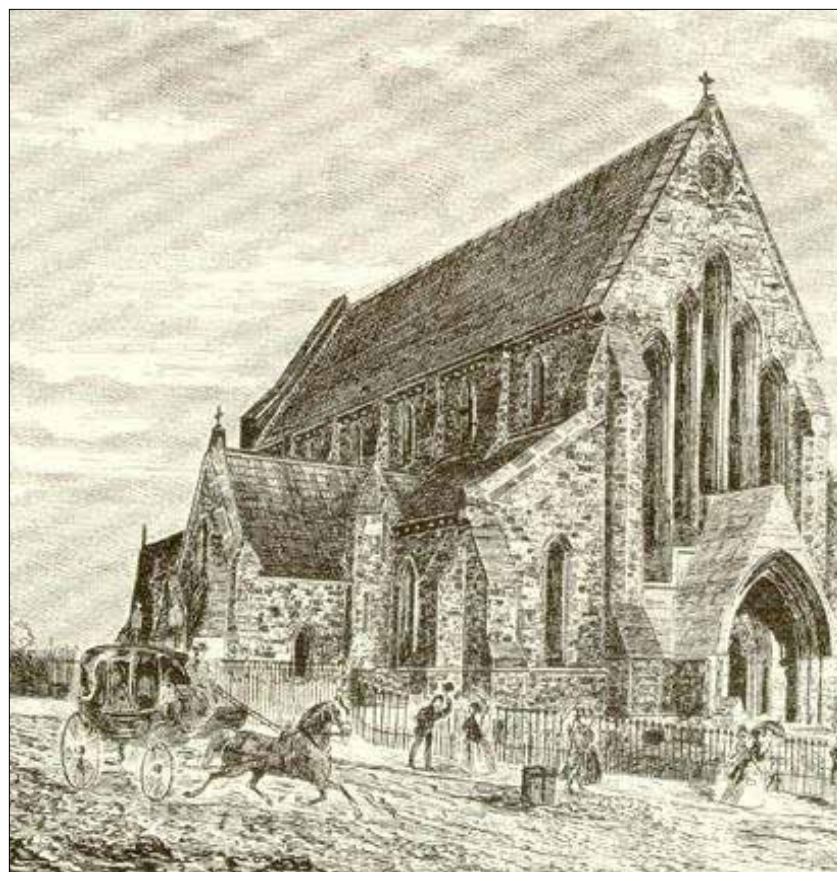
그리고 영국에서 독립파 청교도 (Independents) 운동은 헨리 제이콥 (Henry Jacob)에 의해 시작되었다. 독립파 청교도 운동과 분리파 청교도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영국교회에 대한 개념이다. 1596년 헨리 제이콥은 분리파 운동은 잘못이며, 영국교회는 국가교회 (State Church)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파 청교도들은 영국교회를 부정했지만, 그러나 독립파 청교도들은 영국교회를 인정했다. 영국 국왕 엘리자베스 1세의 사망

으로 튜더 왕조의 (Tudor Dynasty) 대가 끝나자,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국왕 제임스 1세를 겸하게 되면서 스튜어트 (Stewart) 왕조가 영국의 삼 천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1603년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 와서 왕위에 오르자 교회개혁을 부르짖는 "밀레너리 청원 (Millenary Petition)"을 작성한 청교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은 헨리 제이콥이었다. (밀레너리 청원은, Millenary Petition, 1603년에 청교도 목회자 천명이 제임스 1세에게 보낸 청원서이다. 이 때는 바로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기 위해 런던으로 향하던 때였다. 이 청원은 제임스 왕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그러나 제임스 1세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드는 것은 허락했다.)

헨리 제이콥은 브라운, 베로우, 그리고 그린우드와 같은 분리주의 청교도들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영국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는 영국교회를 교회로 인정했고, 분리주의 청교도와같이 영국교회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아니했다.

독립파 (비분리파) 청교도들은 영국교회로부터 분리를 원치 아니하고, 영국교회를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교회관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교회 언약을 통해 교회의 회원권을 갖는다는 것은 분리파 청교도들과 흡사하다. 헨리 제이콥은 자기가 작성한 요리문답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로서 언약을 통해 믿는 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구성된다. (Question: How is the visible church constituted & gathered? Answer: by a free mutual consent of Believers joining and covenanting to live as members of a holy society together an all religious & virtuous duties as Christ & his Apostles did institute & practice in the Gospel. By such a free mutual consent also all civil perfect corporation did first beginner.)

제이콥의 교회관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언약을 통해 회원권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교회의 정치와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운영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서 자치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역사적으로 제이콥의 이러한 회중교회 사상을 널리 보급한 사람이 윌리엄 브래드쇼 (William Bradshaw



1571-1618)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란 예배를 위하여 모인 회중이다. 다른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조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교회로 모인 각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 동등한 권위를 가지며, 각 교회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 치리한다. 어떤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청교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언약을 채택하는 것은 영국교회에서 보면

불법이며, 영국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상이다. 영국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와 청교도들도 이러한 교회관을 거절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국가교회 스타일로 생각했다. 국가교회는 그 국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무형교회" (invisible Church)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칼빈의 교회관은 특별히 기록교양 4:1:7에서 잘 설명한다). 그러나 칼빈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행교회는 택함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공존함을 주장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가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회중교회와 차이가 있다. 회중교회는 유행교회 회원의 거룩함, visible saints, 참된 믿음의 성도들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에 의하면 유행교회에서 참교회를 가려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령이 성경대로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것에서 찾았다. 이 기준은 교회의 회원들

인간의 눈으로는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회중교회 교회관은 자발적으로 교회 언약을 통해 교회의 회원이되며,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국가교회인 영국에서는 이 사상이 불법이었다. 그러므로 회중 교회 청교도들은 결국 영국을 떠나 뉴잉글랜드로 와서 그들의 교회 언약을 기초로하는 회중 교회의 이상을 실천하게 된다.

1620년 분리파 청교도들인 순례자들, 즉 필그림 (Pilgrim)들은 화란을 거쳐 뉴잉글랜드로 와서 정착하게 된다. 이들은 분리파 청교도들인데 메이플라워 언약을 체결함으로 교회언약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드디어 뉴잉글랜드에서는 그들의 뜻을 이루게 된다. 메이플라워 언약 (Mayflower Compact), "우리는 함께 그리고 엄숙하게 하나님과 서로에게 우리의 질서와 보존을 위해 함께 공동체적인 체제를 만들기로 서약한다."

"(We, do, by these presents, solemnly and mutually, in the presence of God and one of another, covenant and combine ourselves together into a Civil Body Politic, for our better ordering and preservation.")

이 교회 언약은 사회언약의 성격까지 띠게 된다. 이들은 플리머스에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는 엄숙한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의해 세워졌다.

윌리엄 브래드포드 (William Bradford, 1590 - 1657)는 메이플라워 협정의 서명자였으며, 1621년부터 1657년까지 약 30년 동안 플리머스 식민지의 주지사를 역임했다 (Governor of the Plymouth Colony 물론 중간에 쉬기도했다). 그의 저널인 Plymouth Plantation은 1620년부터 1646년까지 Plymouth의 역사를 잘 다루었다. 브래드포드는 교회 언약을 만들어 하나님을 힘 주시는데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께 순종한다고 맹세했다.

1629년 존 화이트 (John White)의 지도하에 살렘에 도착한 분리주의 소수의 청교도들은 살렘 교회를 세워 교회 언약을 체결했다. 그들의 1629년 살렘 교회 언약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다음과 같이 언약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함께 따르고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 (The Salem Covenant of 1629: We covenant with the Lord and one with another; and in the presence of God, to walk together in all his ways, according as he is pleased to reveal himself unto us his Blessed word of truth.)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원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www.lsgc.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Tel: (213) 481-2779, www.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 화-토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아다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c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26)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 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www.wmccs.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
실비치 사랑교회 (Sea Beach Se-Fe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부)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지역원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관심도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일일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 (626) 964-96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강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 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Tel: (714) 446-6202, www.groceim.org / www.bk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주: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7:00 수요일예배: "어성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감사하자(Let's be Thankful)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어떤 문제에 당면해도 헤치고 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감사는 허공에 흩어지는 말의 향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마무리면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복된 영적 순환의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고 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메마르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의 통장에 감사의 잔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에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케어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케어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 있고 따뜻해집니다. 감사는 복과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복과 능력의 통로이고 에너지이고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의 모든 고백에서 감사의 정서와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아 주 열심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거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최고 지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믿음의 땅에서 드리는 감사는 물을 퍼올리는 펌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 한바가지씩을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깊은 수맥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쉼 없이 나오듯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잘 할 때 질투하지 아니하고 감사기도하면, 그 감사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샘에서 기적의 역사가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분량을 더 늘려 나가십시오. 감사를 기도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원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로 주님의 은혜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 일터가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에 거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거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온 가정에 가득 차고, 생활이 변화되며, 주님이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에 거하면 죽을 일도 살 일이 되게 하십니다. 울 일도 웃을 일이 되게 하십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3) 천륜이라는 자녀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자어 중에 천륜이라는 단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를 말한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석자들 중에 혼자된 후 새로운 배우자감을 찾던 중에 서로가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 연분을 찾은 듯 행복에 젖는 경우를 볼 때 그들이 기쁘니 같이 기뻐하다가 간혹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을 아득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섭섭함 혹은 더 나아가 상처를 받았을 경우 하나님을 경외함에 미칠 영향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에베소서 6: 4)"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and Florida.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가장 위대한 감사

플로리다주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인으로 1981년에 130세로 죽은 찰리 스미스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130년의 세월은 마치 실에 끼워놓은 진주 알처럼 하나하나 모두 고통으로 점철된 세월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었고, 주인의 천대와 멸시 속에 어릴 때 부모와 헤어져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나날이었습니다. 조금 자라자 미국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 다니며 매 맞고 죽도록 일하는 모욕과 천대의 나날을 살아야 했습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20번 이상 넘겼다고 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스미스 씨는 임종을 며칠 앞두고 그를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음은 감사드립니다. 매 맞고 고통당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을 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저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가게 해주신 것과 130년 그 많은 고통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는데 흑인 스미스씨의 기도를 들으며 스티븐스 목사님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신앙은 세상이 감

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이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이다"고 의젓한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는 성숙한 감사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 첫번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인 청교도들입니다. 히13:15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께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사방을 둘러봐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성숙한 감사, 질은 역경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songpak@hot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9회 독후감 공모전 우수상 조진석 목사, 임보라 사모, 윤주미 성도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19명이 응모한 '탕부 하나님(팀 켈러, 두란노)' 1명이 응모한 '특별한 부름 특별한 아픔(하재성, 생명의 말씀사)' 3명이 응모한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정한욱, 깊은문고)' 3명이 응모한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손성찬, 두란노)' 그리고 3명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최완 키르케로르, 오석환 외 2인 역, 카리스 아카데미)'를 읽고 응모했다. 6권 추천도서 중 한 권은 단 한명도 독후감 공모에 참여자가 없었다. 올해도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한 백승철 목사(시인, 문학평론가, 에피포 도예술평론가 대표)는 "탕부

를 읽은 응모자의 수상작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수상작품을 선정하는데 배나 힘겨운 심사과정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제 9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은 12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미주복음방송(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에서 언론인협회 총회와 함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선정 작품에 대한 자세한 심사평은 시상식을 마치고 게재된다. 시상식 관련 문의는 (213)663-4340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오렌지한인교회 창립 47주년 감사예배가 주일예배시간에 열렸다. 사진 오른쪽아래 원인은 이날 말씀을 전한 박한규 우림교회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창립 47주년 감사예배

"진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되자"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 창립 47주년 감사예배가 12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피세원 목사 사회로 시작된 11시 예배는 이병문 장로가 기도했으며 이채원 집사가 찬양했다. 이어 박한규 목사(우림교회 담임)가 '사랑하기 때문에(마26:6-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목사는 "본문의 여인은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사람이다.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행동으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입술에서 그치지 않기를 축복한다. 오늘 임직 받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본문의 여

성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옥함을 깨뜨렸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것이다. 십자가보혈은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미움과 분노를 사랑과 용서로 바꾼다. 보혈은 어떤 죄도 깨끗이 씻어낸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혈을 쏟아부어주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 사랑을 안다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으며 용서받을 줄 안다면 용서 못할 것 없다"며 "자아가 깨어진 크리스천과 깨어지지 않은 크리스천이 있다. 자아를 깨뜨리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 날이 갈수록 진한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박한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창립47주년 기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가 드려졌으며 장로에 조경환, 안수집사에 신주식, 그리고 권사에 김홍숙, 노효은, 장윤미 씨가 임직을 받았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9회 독후감 공모전

우수상 조진석 목사, 임보라 사모, 윤주미 성도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독후감 공모전이 올해 9회를 맞았다. 지난 10월 31일 마감된 제 9회 독후감 공모전에는 총 29편이 최종심에 올라와 △우수상 조진석(목사 주길교회 CA), 임보라(사모 북가주새누리교회), 윤주미(성도 베델교회 CA) △장려상 양유나(집사 생수의강선교회) 임지영(집사 알바인교회, CA) 임은아(집사 임마누엘장로교회) 구계자(사모 뉴욕광명교회) 한미란(집사 가스펠교회)으로 선정됐다. 이번 회에는 6권의 추천도서가 선정됐으나 아쉽게도 한편

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19명이 응모한 '탕부 하나님(팀 켈러, 두란노)' 1명이 응모한 '특별한 부름 특별한 아픔(하재성, 생명의 말씀사)' 3명이 응모한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정한욱, 깊은문고)' 3명이 응모한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손성찬, 두란노)' 그리고 3명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최완 키르케로르, 오석환 외 2인 역, 카리스 아카데미)'를 읽고 응모했다. 6권 추천도서 중 한 권은 단 한명도 독후감 공모에 참여자가 없었다. 올해도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한 백승철 목사(시인, 문학평론가, 에피포 도예술평론가 대표)는 "탕부

성화장로교회 소리에 지명현 목사 초청 가을음악회

"인생길을 가는 동안 주님 붙잡고 나아가자"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와 성동진 내과(원장 성동진, 성은혜), 그리고 센터에 디컬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한 소리에 지명현 목사 초청 가을음악회가 '이 계절에 이 사랑을'이라는 주제로 13일(월) 오후 7시 성화리에 열렸다. 본 교회 전도사이기도 한 성동진 원장 사회로 시작된 가을음악회는 지명현 목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그윽한 깊은데서', '낮은 자의 하나님', '시편 23편', '비목'을 불렀으며 소프라노 양유진이 '그리운 금강산'을, 지명현 목사와 함께 '보리밭', '하나님의 은혜' 등을 불렀다. 지명현 목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사는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법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아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감사하게 된다. 선한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서 양을 지키신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길

이 언젠가 마감하게 될 터인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마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된 자들이다. 영이 없기 때문이다. 영혼육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며 "천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 오늘 음악회를 통해 은혜가 우리 맘에 임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황금빛이여야 좋다'라는 시를 낭독했으며 찬송가 '저 건너편 강 언덕에'를 불렀다. 이날 음악회는 이동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예배에서 관계자들이 케익을 자르는 모습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예배에서 관계자들이 케익을 자르는 모습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창립 120주년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루신 기적"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가 교회창립 120주년을 맞아 5일(주일) 창립기념 감사예배 및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120주년 기념 임직예배는 한의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상철 장로의 기도 후 차세대 공연, 120년 교회역사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어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탐 최 하와이 지방감리사가 설교, 이서영 하와이 총영사의 축사와 임직식이 거행됐다. 이날 창립기념 임직식에는 아이아 연합감리교회, 베다니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및 신도들이 참석해 미주한인장자교회 창립 120주년을 축하했으며 새로운 이민 100년을 위한 이민공동체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불어 수행해 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창립 120주년 기념예배 1, 2, 3부 예배에서는 한의준 목사가 '인생 매뉴얼(16), 승리하는 지혜로 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의준 담임목사는 창립 120주년 기념 목회수상에서 "창립 120주년을 맞으며 저희 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120년의 역사 동안 교회의 터를 몇 번이나 옮기고 교

회의 크고 작은 굴곡과 풍상을 지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금을 보내고, 100주년 기념 성전도 지으며 오늘 창립 120주년을 맞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루신 기적"이라며 "특별히 이번 창립 120주년을 맞아 감사한 것은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 70명이 넘는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받은 바 직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요 하나님의 기쁨임을 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제4차 CMF-Kid's Celebration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 웃음과 행복 넘쳐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철민 장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는 유치부에서 9학년 까지 참여하였으며 특히 이번 행사장에서 3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에 살면서 교회 근처에 속 소를 마련하고 자녀들과 함께 참석한 분이 계속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며 수고한 교사들과 스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제4차 CMF-Kid's Celebration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 웃음과 행복 넘쳐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10일(금)-11일(토)까지 제 4차 CMF-Kid's Celebration 행사를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개최했다. 환영식으로 시작된 첫째 날 오전 시간에는 그룹으로 나눠 성경공부 시간을 가진 뒤 오후에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 5시 참가자 전원이 본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설교는 탁원준 선교사(페루)가 디모데전서 2장3절-6절을 본문으로 "You are on God's mind"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자 어린이들은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했다. 둘째 날 역시 그룹으로 나눠 성경공부를 하고 미니 콘서트도 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마지막 순서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철민 장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는 유치부에서 9학년 까지 참여하였으며 특히 이번 행사장에서 3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에 살면서 교회 근처에 속 소를 마련하고 자녀들과 함께 참석한 분이 계속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며 수고한 교사들과 스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제4차 CMF-Kid's Celebration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

밸리연합감리교회 창립50주년 기념감사예배

교회명 '예수동행교회' 로 바꾸고 '넥스트 50년' 준비기로

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안정섭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감사예배를 드리고 이날을 기해 예수동행교회로 이름을 바꿔 새로운 5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50년 전 고조산 목사에게 의해 창립된 밸리연합감리교회는 차현희, 김낙인, 장동일, 류재덕 목사를 거치면서 꾸준히 성장해 오면서 밸리지역 최초의 교회로서 선교적 사명과 커뮤니티 봉사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왔다. 지난 11월 5일 주일예배를 통해 드려진 창립기념 감사예배에서는 이들 역대 담임목회자들의 영상 메시지가 교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특히 이 교회를 40년 이상 섬겨온 5명의 성도들에게 40년 이상 근속 감사패가 전달되기도 했다. 이들 40년 이상 근속자들은 김기남, 김창욱, 안지매, 황은

서, 양범모 장로등이다. 이날 안기주 장로에 대한 은퇴찬사와 신전 집사, 권사, 장로, 명예장로 임직식도 열렸다. 안정섭 담임목사는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교회가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았다. 새로운 부대에 담아 '넥스트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부로 교회 이름을 예수동행교회(Journey with Christ Church)로 선포한다. 이로써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 할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전도와 선교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존 최 목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전담임목사였던 김낙인 목사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밸리연합감리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동부교계 기사판

영생장로교회, 선교사재파송 및 위임예배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는 교회설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선교사 재파송(백운영 목사) 및 제3대 목사(정승환 목사) 위임예배를 11월19일(주일) 오후 4시 본교회 제 1예배실에서 드린다.

▲ 문의: 215-542-0288

퀸즈장로교회 50주년 감사예배 "The Way" CTS 방송

CTS에서 퀸즈장로교회 50주년 감사예배 "The Way"를 11월 18일(토) 오후 5시에 방송한다. 채널은 Cablevision(ch1156), Optimum(ch1156), 유튜브: CTS뉴욕방송, 온라인방송: www.ctsnyc.tv, RokuTv: CTS America

▲ 문의: 718-886-4040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 52회 정기총회

뉴욕지구한인목사회는 제 52회 정기총회를 11월21일(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개최한다.

▲ 문의: 박희근 목사 917-254-0887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고 순회접수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 등록신고 기간(2023.11.12~2024.2.10)을 공지했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 해당된다. 한인 밀집지역 순회접수는 11월의 경우 ▲H마트 뉴저지 릿지필드점에서 16일(목)부터 19일(주일), 23일(목)부터 26일(주일), 30일(목)부터 12월3일(주일)까지 정오~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한남체인 포트립에서는 17일(금), 19일(주일), 24일(금), 26일(주일), 12월1일(금), 12월3일(주일)에 각각 정오~오후 4시까지 ▲한양마트 뉴욕 플라싱점에서는 16일(목), 18일(토), 23일(목), 25일(토), 30일(목), 12월2일(토)에 각각 정오~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2030세계박람회 뉴욕 기도대성회

사단법인 세계엑스포선교협의회(대표 이광훈 목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뉴욕 기도대성회를 11월24일(금) 오후 8시에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

▲ 문의: 917-693-2763

미동부기아대책 2023 해외아동결연 후원의 밤

미동부기아대책기아대책기구(회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12월3일(주일) 오후 5시30분 "2023 해외아동결연 후원의 밤"을 뉴욕그레잇넷교회(양민석 목사 사무)에서 개최한다.

▲ 문의: 917-667-8555, 201-675-9591

퀸즈장로교회, 추수감사절 예배 및 만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11월23일(목) 오후 5시에 추수감사절 예배 및 만찬의 시간을 본교회 지하친교실에서 갖는다.

▲ 문의: 718-886-4040



임직 예배 후 임직자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보스턴장로교회, 은퇴 및 임직 예배 드려

장로 3인, 안수 집사 3인, 명예 권사 3인 임직

보스턴장로교회(담임 장성철 목사) 은퇴 및 임직 예배가 11월 12일(주일) 오후 5시 소속 노회인 KAPC 뉴잉글랜드 노회 원들과 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다.

예배는 장성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표기도 최용하 목사(뉴잉글랜드 노회 서기), 김성국 목사(KAPC 총회장)의 설교, 임직 서약 및 공포, 축사 김대업 목사(새빛교회 담임), 권면 황문영 목사(뉴잉글랜드 노회 부노회장), 임직 답사 윤경균 장로, 광고 김영선 장로(당회 서기)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각각 함께(열왕기하 6:1-7)"를 주제로 한 설교에서 "보스턴장로교회는 Th.M 과정을 고든콘웰신학교에서 하던 당시 신학생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손 내밀어 주셨던 교회

였다. 임직을 굳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저 타이틀이 목적인 리 없다. 본문의 엘리사와 그 생도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듯이 한 곳에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임직을 받으면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라고 설교했다.

이어 진행된 임직식을 통해 장로 3인(윤경균, 이영민, 이은우), 안수집사 3인(최인석, 김정환, 김윤상), 명예권사 3인(이기희, 이무선, 민혜경)을 안수하여 임직 했으며 장로 1인(박광원)이 은퇴했다. 모든 순서는 한재홍 목사(뉴욕신광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브니엘한인장로교회 위임 및 입당감사예배 후 사진촬영 했다

브니엘한인장로교회, 흥승민 목사 위임 및 입당감사예배

"예수님의 보혈이 터져 나오는 교회"

브니엘한인장로교회는 흥승민 담임목사 위임 및 입당감사예배를 11월5일(주일) 오후 5시 본교회에서 드렸다.

이병은 목사(삼일교회, 동부시찰장)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이성흠 목사(불티모어 시온장로교회, 필라노회서기), 설교 류인현 목사(뉴프런티어 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류인현 목사는 '사랑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막 14:1-19)'라는 제목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 자기를 위해 향유육함을 깨뜨리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브니엘한인장로교회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흥승민 목사의 목회 여정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목사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위임식은 위임국장 김성철 목사(예수장로교회) 인도로 위임목사와 교인 서약이 있는 후 김성철 목사의 기도 및 공포가 있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인 동문회 축가, 임수병 목사(필라사랑의 교회, 필라노회부서기)와 김성철목사(위임국장)가 축사를 전했고 이철희 목사(참된교회, 필라노회임시부장)의 권면이 있었다.

김성철 목사는 "브니엘한인장로교회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성전이 세워졌으니 오고 가는 많은 자의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입당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흥승민 목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앞에 참 제자, 참 목사, 참 신자가 되며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드러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는 어느 곳이나 찌르면 예수님의 보혈이 터져 나오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만이 존경받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브니엘한인교회 교인 대표가 선물을 증정했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인 동문회가 축하패를 전했다며 모든 순서는 흥승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광고 정하일 장로, 만찬을 위한 기도는 주영명 목사(사랑제일장로교회)가 했다.

(홍현숙 기자)



뉴저지교협 이취임식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제52회기 뉴욕목사회 회장, 부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 및 기자회견

회장 후보 정관호 목사 · 부회장 후보 한준희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는 11월10일(금) 오전 11시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제52회기 뉴욕목사회 회장, 부회장 후보 소견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홍석 목사의 사무엘상 16장 7절, 13b절 말씀 낭독과 기도로 시작된 모임에서 김홍석 목사는 "51회기 목사의 목표는 '함께하는 목사회'였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풍성한 51회기 목사회였음에 감사하다. 앞으로 회장, 부회장 임후보가 소견을 발표할 때, 목사의 비전과 앞으로 나아가 그 길을 나타낼 때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인 박진하 목사는 한국 출타 중으로 서기 박현영 목사가 직무를 대행했으며, 위원으로는 김요셉 목사, 한필상 목사, 안경순 목사, 박희근 목사, 안재현 목사로 구성됐다.

총무 박희근 목사는 "11월4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회장 1명, 부회장 1명 후보가 등록됐다. 1차 서류에 미비서류 보충 후 11월 7일 화요일 선거관리위원 5명이 출석한 가운데 후보를 확정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회장 후보 정관호 목사는 목사회에서 또 다른 기관이 된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에 대해서 "역할과 하는 일들을 자체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해산하여 목회자는 목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가운 일"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교역자연합회에서 정관호 목사에게 목사

회 회장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정 목사는 "원리와 원칙이 중요시되는 목사회가 되어야 한다. 잘못된 자유주의, 은사주의 등을 배격해 나가면서 바른 신학 사상을 가지고 목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목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너무 많이 추락한 목사의 위상"이라며 "바른 목사상을 잘 정립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교계에 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기에 베드로전서 5장3절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라'를 표어로 내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회장 후보 한준희 목사는 "교계를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움으로 비판의 소리를 내었다면 이제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전하며 회장을 보좌하는 일에 힘쓰며 회장과 함께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목사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 구체적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다. 둘째, 60대 이상의 목사와 40-50대 목사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1.5세대와 1세대의 목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셋째, 52회기 목사회가 뜻이 있다면 목사회의 사무실과 목사의 교제의 장을 마련해 보는 것을 구체적으로 2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순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행이자 서기인 박현영 목사의 인사와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욕목사회 회장, 부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 및 기자회견 후 사진촬영 했다

37회기 뉴저지교협 이취임식 개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행진 쓴다"

37회기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가 "포팬목행(행1:8)"이라는 독특한 표어를 내걸고 출범했다. 37기 사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1월 13일(월) 오후 6시 뉴저지시모방교회(박상천 목사)에서 열렸다.

2부 이취임식은 이준규 목사(총무)의 사회로 진행됐다. 직전 회장 박근재 목사가 신임 회장 김동권 목사에게 교협기를 전달했다.

1부 예배는 사회 박상천 목사(부회장), 경배와 찬양 박지우 목사(C&G교회)와 이준규 목사(총무), 기도 강영안 장로(뉴저지장로연합회 회장), 성경봉독 유연양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설교 고한승 목사(전 회장), 헌금기도 박성철 장로(부회장), 헌금송 뉴저지장로성가단, 축도 박상천 목사(전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한승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고린도전서 1:2-3)"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일이 교협이 하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신임 회장 김동권 목사가 취임사를 통해 포스트 팬데믹 이후 어려워진 한인교회에 대한 해법으로 포팬목행(행1:8)을 말하며 의미를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 행진"이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의 준말이라고 설명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계가 처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교회들이 침체되고 무너졌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힘찬 발걸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금 기억하며 달려가는 복된 발걸음이 뉴저지 교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어 임신행위원들을 소개했다. 임원은 회장 김동권 목사, 부회장 박상천 목사, 박성철 장로, 총무 이준규 목사, 서기 양해진 목사, 회계 유승화 장로 등이다. 또 선거관리위원장 박근재 목사, 공천위원장 유병우 목사, 회칙위원장 이정환 목사 등을 두었다.

각 분과위원은 교육 한동원 목사, 선교 김재열 목사, 음악 김경철 목사, 이단대책 임희영 목사, 청소년 홍재용 목사, 체육 권형택 목사 등이다.

박태규 목사(뉴욕교협 회장)의 축사 후 신임 회장 김동권 목사는 직전 회장 박근재 목사에게 공로패, 직전 이사장 류정환 장로(대리 박성철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조영길 목사(은목회 총무)의 폐회 기도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합창단과 연주자들이 사진 촬영을 했다

웨체스터목사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예수 그리스도"

총 9곡의 명곡들을 웨체스터 목자들이 찬양

웨체스터목사합창단은 제3회 정기연주회를 11월 12일(주일) 오후 6시 웨스트체스터연합교회(담임 전구 목사)에서 열었다. 웨체스터 지역은 20여 년 전부터 자체 교협을 구성하고 연합활동을 해 오다 목사합창단을 구성하고 2019년 10월에 첫 연주회를 가졌다. 팬데믹 기간 중에는 정기연주회는 하지 못했지만, 버추얼 콰이어 영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위로한 바 있다. 이번 연주회에 참가한 웨체스터 목사합창단 단원은 9명의 목사(김홍선, 최기성, 신성근, 노기승, 임일승, 전구, 송인규, 노성보, 서민호)와 초기 지휘를 맡았던 문현호 전도사 등 10명이다. 지휘는 장효중, 피아노는 이현주, 그리고 현악 앙상블이 반주했다.

웨체스터교협 회장인 김홍선 목사의 기도로 연주회가 시작됐다. 이번 연주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주제 아래 1부 예언과 탄생, 2부 고난과

부활, 3부 승천과 재림이라는 소주제로 각 3곡씩 총 9곡의 명곡들을 웨체스터 목자들이 찬양했다. 게스트로는 스테이지 현악 앙상블(바이올린 윤정원, 피아노 양대진, 첼로 샘 정)의 연주, 그리고 아이소리모아 어린이 합창단 등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찬양이 끝난 후에는 웨체스터목사합창단 단장 노성보 목사는 참가하여 마음을 합해 같이 찬양을 한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목자들이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응답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라며 목회자들이 두 손을 들어 축복기도를 드렸다. 정기연주회는 전구 목사(웨스트체스터연합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제36차 전국연차총회

공동의장에 김한요 목사와 박은성 목사 선임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제36차 전국연차총회가 6일(월)부터 8일(수)까지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열렸다. 장데이빗 선교사의 찬양인도와 조용중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나광삼 목사(공동의장)가 기도했으며 양춘길 목사(공동의장)가 ‘오직예수(빌 1:20-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춘길 목사는 “교회와 사회가 위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위기인 만큼 뭔가 새롭게 해야 하는데 하던 대로 한다”며 “위기를 느낀다면 뭔가 새롭게 해야 한다. 선교하며 다니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서신을 썼던 목자의 심정, 어려운 교회에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던 편지를 하나님은 말씀이 되게 하셨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우리가 위기상황이기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이전에 신실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상황에 놓을



KWMC 제36차 전국연차총회에서 양춘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져서 환경이 어려워져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교회와 사역들이 과거 역사보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사회의 어려움과 인본주의 팽배함 반기독교현상 때문이겠지만 우리들의 신실함을 잃어버려서일 것이다. 우리들이 말하는 신실함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다”라며 “KWMC가 지난번 대회에서 ‘은 인류의 소망’이라 선포했고 이번에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크게 외쳐야 하고 바울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담대해야 한다. 신실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적 신앙적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고석희 목사(상임의장)가 성찬식을 집례 했으며 이송중 목사(대표의장) 사회로 시작된 연차총회는 송제임

스 공동의장이 기도했으며 신임공동의장 선임 및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공동의장에 김한요 목사와 박은성 목사가 선임됐다. 이어 김휴성 선교사가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구호 보고를 했으며 사무국장 이명철 목사 기도로 마쳤다. 둘째 날 오전 양성일 목사(공동의장) 사회로 경건회를 가졌다. 경건회는 송제임스 공동의장이 기도했으며 백운영 목사(공동의장)가 설교했고 고인호 목사(전임의장)가 축도했다. 이어 이송중 대표의장 사회와 윤덕근 목사(공동의장) 기도로 연차총회 두 번째 시간을 가졌으며 중식 후 조용중 사무총장 사회로 세 번째 연차총회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고성준 목사(수원 하나교회)가 ‘전방개혁 돌파’라는 주제로 선교도전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후에 열린 선교도전 시간은 김학형 선교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한 선교’ 이창진 선교사가 ‘Art & Media Track Report’라는 주제로 선교도전시간을 인도했으며 조용중 사무총장 사회로 자유토론시간을 가졌다. 이어 홍인석 목사(공동의장) 인도로 기도회를 갖은 후에 둘째 날 일정을 마쳤다. 김성국 목사(공동의장) 사회로 열린 셋째 날 오전 경건회는 백신중 목사(공동의장)가 기도했고 노창수 목사(공동의장)가 설교했다. 이어 선교도전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유스하이얼콜링 컨퍼런스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유스하이얼콜링 컨퍼런스

“흔들리는 믿음과 정체성 회복위해 소울프로그래머런”

미주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수련회 ‘유스 하이얼콜링 컨퍼런스(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가 오는 12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포모나에 위치한 웨라톤 패어팩스호텔에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관 단체인 미주성서화본부와 ‘순 무브먼트(Soon Movement, 구 KCCC)’는 지난 11월 8일(수) 오전 11시 제이 데이 그랜드호텔에서 박인호 목사(미주성서화용동본부 총무)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용동본부 공동 대표)는 “한인부모들에게 왜 이민 왔느냐 질문하면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마약문제, 정신갈등 스트레스를 다룰 정도”라고 지적했다. 송 목사는 “이민교회와 기관들이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원캠퍼스 선교를 주도하는 순 무브먼트와 함께 청소년들을 신앙적 복음적 차원에서 훈련시키고 있으며 하이얼콜링 컨퍼런스는 성시화가 지속적으로 동참하려고 한다. 이번에 4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에게 닥친 문제, 가정이 깨어지고 정체성으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소울케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같이 힘을 합쳐 청소년들의 장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순 무브먼트 대표인 오윤태 목사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으로 도전받고 새로운 인생길을 갈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우선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오윤태 목사를 비롯하여 진 안 목사(Living Hope Community 교회 대학부)등 10명의 전문 분

야 강사들이 참여한다. 참석 대상은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며 모든 순서는 영어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11월 30일까지 등록할 경우 300달러,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330달러, 12월 11일부터 26일까지는 360달러다. 한편 유스 하이얼 콜링을 준비하는 주최 측은 한인 청소년 육성에 뜻을 같이 할 교회와 독지가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금에 등록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김인화 간사(818)314-6643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찬양사역자 캐서린 조의 찬양 '채워주소서' 유튜브 영상

찬양사역자 캐서린 조 “채워주소서” 출시

찬양사역자 캐서린 조 새 음원 “채워주소서”가 최근 출시됐다. “채워주소서”는 스페니쉬 찬양 Inagotable를 변안한 워십곡이다. 캐서린 조 씨는 “이번에 출시된 찬양곡 채워주소서는 파워풀한 예배곡”이라 소개한 뒤 “번역과 녹음 준비를 하며 수백번은 불렀지만, 부를 때 마다 은혜였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며 부른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그분을 향한 고백이 되시길 바래본다”고 말했다. 캐서린 조 씨는 “번역에서부터



LA기윤실 박문규 공동대표가 기윤실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기윤실 30주년 기념 세미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답게 살자”

로스앤젤레스기독교윤리실 천운동(공동대표 박문규 박사, 현수일 목사)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 및 만찬이 11일(토) 오후 6시 LA비전교회(담임 김기업 목사)에서 열렸다. 박문규 대표는 “LA기윤실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답게 살자고 30년 전에 고 유용석 장로, 김기성 장로 등에 의해 LA에 세워졌다”며 “기윤실은 첫째 건강교회운동으로 세미나 열렸고 2001년부터 매년 건강교회포

럼을 해왔다. 많은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려고 애썼다. 재정, 임직, 권력구조, 건축, 선교, 사회봉사 등을 진행했다. 둘째 동족 돕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카작스탄의 고려인, 북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사랑의 빵운동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까지 운영했다. 팬데믹으로 중단되었지만 오는 2024년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생활신앙운동이다. 정직하게 세금내기 운동이다. 기윤실의 개혁운동이 한국교회에서 현실성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의미 있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탈북자라던지 서류 미비자들 중 학자금 이 필요한자들을 위해 한인디 아스포라장학금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봉사상을 만들어 2012년부터 미주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회봉사하는 단체와 개인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 사회봉사상은 2년전 기윤실 창립자 유용석 장로가 사회봉사에 대해 신중히 사회봉사에 대해 이념도 바꿨다. 내년부터 기독교환경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수일 목사(LA기윤실 공동대표) 사회, 박상진 목사(전 기윤실 사무국장) 기도, 신종석 목사(미성대 교무처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교회의 참여-자연환경 보호의 신학적/사역적 중요성’이라는 주제 세미나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민중기 목사(KCMUSA 이사장, 총현선교회교회 원로)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사랑의교회 연말특별새벽부흥회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연말특별새벽부흥회가 ‘은혜의 대로를 열어주소서(시 84:5)’라는 주제로 27일(월)부터 12월9일(토)까지 평일 오전 5시와 토요일 오전 6시에 개최된다. 강사는 하근수 목사(동탄신요교회), 류응렬 목사(와스톤중앙장로교회), 김태권 목사(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 은퇴목사, PCM공동대표), 조엘 김 목사(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Darin McWaters 목사(풀러턴 자유교회), 알렉스 최 목사(이마고데이교회 총괄목사)

▲ 문의: (714)772-7777

미주복음방송 '나눔 On, 라디오 On 캠페인'을 진행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라디오를 선물하는 '나눔 On, 라디오 On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 On, 라디오 On 캠페인'은 '빛과 생명의 소리'인 미주복음방송 AM1190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라디오를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라디오를 구입할 수 있도록 30불 상당의 라디오를 10불에 제공, 미주복음방송이 20불 매칭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GBC 라디오는 11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개인은 물론 교회나 기관의 단체주문도 가능하다.

신청링크는 <https://forms.gle/wUy5G3JaCfGPhBLc6>

▲ 문의: (714)484-1190

KJC 피아노스튜디오 오픈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교육자인 채경주씨가 LA에 KJC 피아노스튜디오를 오픈했다. KJC 피아노스튜디오는 100%의 방음 시설과 그랜드 피아노를 갖춘 스튜디오이며 철저한 1대 1 개인 레슨과 단순한 악보 읽고 배우는 정도가 아닌 음악을 만들고 연주할 수 있는 정도로 디테일하게교습하게 된다. 채경주씨는 예원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피아노 연주전공으로 USC 대학원 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22년까지 성신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독주회와 오케스트라와 협연, 피아노 듀오 등을 했으며 예술의 전당, 금호아트홀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교육자로서도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학생들의 미국 대학 입학 뿐만 아니라 음악 경연 대회 등에서도 탁월한 실력으로 다수의 제자들을 입상시켰다. KJC 피아노스튜디오 위치는 LA한인타운 5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근처에 위치한 422 S Western Ave, #207, LA이며 홈페이지는 www.kjc-piano.com 이다.

▲ 문의: (213)819-3700.

한미가정상담소 감사 후원의 밤

한미가정상담소(이사장 수잔 최)는 18일(토) 오후 4시 어바인에 있는 OC 뮤직 홀(17620 Fitch St. #160 Irvine)에서 '감사 후원의 밤'을 갖는다.

▲ 문의: (714)873-5688, (714)892-9910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인 비전넥스트에서 송정명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VISION NEXT...비전을 이어가자”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마지막 행사인 '비전넥스트'가 11월 11일(토) 오후 6시 월드미션대학(총장 임성진)에서 진행됐다.

1부 만찬에 이어 신년록 부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비전 나눔은 윤경호 목사(콜로라도 OMC 담임) 기도, 송정명 목사(WMU 2대 총장) 설교, 최원현 학우 특송, 임성진 총장 비전나눔과 논문, 화보집 소개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송정명 목사는 “비전의 근간은”(마 9:35-38)의 제목으로 “고 임동선 목사의 비전의 근간은 예수님의 사역현장이 근간이었다. 월드미션 대학이 가르치고 섬기는 봉사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앞으로 달려 나갈 비전의 넥스트 과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설립자가 품은 비전이 왜 해 책임이 있음을 알고 이뤄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성진 총장이 월드비전대학교의 역사와 학과, 현재의 상황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목회나 신학 기준에서 다양한 전공으

로 확장해 가고, 한인 중심에서 라틴, 아프리카, 영어권, 중국 등 외국인 다민족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원한다”며 “교육혁신, 학생증가, 영성 강화, 사회적 영향력 증가, 자원개발의 확장을 위한 비전을 갖고 창립자 임동선 목사의 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2권으로 구성된 논문 1집 '오늘 우리에게 영성이란 무엇인가', 2집 '영성,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화보집을 소개한 뒤 DsLim Foundation에서 김진국, 류명순, 이찬희, 이종영, 김학송, 최영희씨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윤성환 이사장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올해 임동선 목사 100주년을 맞아 월드미션을 비롯한 OMC, DsLim Foundation에서는 고 임동선 목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기념학술세미나, 기념관 개관식, 기념 음악회, 비전넥스트 등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고 임동선 목사를 기렸다. (이성자 기자)

교도소 건너 외국까지... “벽찬 감사로 사랑 나누죠”

2023 한국교회 추수감사의 노래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한국교회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베풀고 섬기는 ‘사랑행진’을 써 내려가고 있다. 복음에 빛진 마음으로 누리는 감사의 감격을 교회 안팎으로 흘러보내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국내 소외 이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외 저개발국가 아이들을 챙기는 교회도 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 전액을 소외 계층과 나누는 사례도 눈길을 끈다.

바다 건너는 추수감사 사랑 신정희(가명·61·인천 주안 장로교회) 권사는 최근 교회에서 빈 상자 50개를 받아갔다.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까지 몽골 우크라이나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을 담기 위해서였다. 신 권사는 지난달 결혼한 딸과 함께 축의금을 일부 떼어 축구공 줄넘기 등 운동용품과 학용품을 구입했다. 같은 교회 다른 성도들도 한 달 전쯤부터 교회에서 빈 선물상자를 챙겨갔다. 지난 12일까지 성도들이 준비한 선물상

자는 2150개. 교회는 오는 19일 추수감사주일까지 국제 택배로 부칠 예정이다. 교회의 이색 사역은 기독교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사마리아퍼스코리아(대표 크리스 위크스)와의 공조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상자를 받은 아이들은 ‘가장 위대한 여정’이란 책을 갖고 12주간 제사후론도 받는다. 선물도 전달하고 선물을 받은 아이들에게 ‘영혼의 선물’ 복음까지 전하는 셈이다. 상자에 온기를 담은 교회는 또 있다. 부산 호산나교회(유진소 목사) 성도들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18일 ‘희망 상자’를 포장한다. 밀반찬 마스크 담요 등 10만원 상당의 16가지 품목이 상자에 담겨 장애인 한부모 조부모 가정 등 부산 지역의 취약계층 400여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추수감사 헌금의 ‘화수분’ 기적 추수감사 헌금을 이웃에 흘러보내는 교회들도 눈길을 끈다. 경기도 고양 거룩한빛광성

교회(곽승현 목사)는 2020년부터 추수감사절을 ‘플로잉 데이(Flowing Day)’로 지키고 있다. ‘(사랑을) 흘러보내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교인들은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수혜 대상을 직접 지정한다. 교회는 절기 헌금을 재정에 환입하지 않고 수혜자에게 헌금을 대신 전달한다. 올해에도 추수감사 헌금 전액을 한부모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해 생활고를 겪는 교인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흥미로운 건 절기 헌금이 흘러보낼수록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까지 1억원 미만이었다던 추수감사 헌금은 지난해 1억 5000만원까지 경총 뛰었다. 절기 헌금 전액을 이웃 섬김에 사용된 뒤 절기 헌금액이 50% 이상 불어난 셈이다. 교회 사회선교위원장인 한주현 장로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목적적이 있을 때 의식이 생기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다”며 “거의 모든 성도가 나눔에 동참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곱씹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 김해 시온중앙교회(류래신 목사)는 올해 모아진 추수감사 헌금으로 다음 달 12일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일일 대집회를 연다. 교회 측은 재소자 300여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떡거리와 2024년 달력 등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 교회 교정사역 담당자는 “감사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누리길 원했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로 교도소 안 영혼을 살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말이 통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소그룹 원해”

한지터 14일 ‘청년 목회자 세미나’ 개최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대표 박종순 목사)가 ‘청년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 청년의 영성을 살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한지터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지주교회(김형석 목사)에서 청년부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첫 강의를 맡은 김성중 장신대 교수는 “청년 소그룹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청년들

의 특성 필요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해 이에 맞는 소그룹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나누는 소그룹,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그룹, 대화가 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를 만나는 소그룹을 원한다”며 “청년 사역자는 소그룹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갖고 리더들을 세우고



예장합신, 인터콥에 승소... “정통신앙 지켜낼 발판 될 것”

1심 법원, 인터콥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청구 ‘기각’

법원이 인터콥 선교회가 대 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변세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단 결의로 인해 인터콥 측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안성민 박진옥 정혜원)는 14일 원고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대표이사 최한우) 일명 인터콥 선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터콥 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했다’는 예장합신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는데 이단

결의는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했다. 전문인국제선교단은 예장합신이 2022년 9월 열린 총회에서 ‘베뢰아, 신사도운동 관련, 양태론, 지역교회와 선교지에서의 충돌’ 등의 이유로 이단으로 결의하자 같은 해 이 같은 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과 8월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다뤄진 쟁점은 종교단체의 결정에 세 상 법정이 관여할 수 있는지와

양육할 수 있는 목회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임형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목사, 이정환 목동지주교회 청년부 목사, 김상인 움직이는교회 목사, 최재욱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목사 등 청년 사역자들의 실제적인 강의도 이어졌다. 이 박사는 “지주교회 청년부는 셀 모임이나 찬양팀 같은 공식 모임 외에도 자신들의 필요와 관계에 따른 취준생 기도 모임, 운동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그룹 활동은 각자의 개성과 재능에 따라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얻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그룹 교제는 행사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소그룹 내 갈등 관리도 필수”라고 말하며 목회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개인적 청년들의 말을 경청하고 먼저 갈등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단 결의로 인한 인터콥 측의 실질적인 사법상 권리 침해 여부였다. 하지만 사실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장합신 측은 재판 기간 내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을 일반 법정이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할 일이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콥 측은 예장합신의 이단 결의가 적법한 절차 가운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예장합신 측은 “교단 나름대로 이단 결의 절차를 갖고 적법하게 진행했고, 2013년부터 공청회를 통해 인터콥 측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부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모두 고려한 1심 재판부는 이단 결의가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예장합신의 손을 들어줬다. 인터콥의 이단 결의를 받았던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이날 선고 후 “정통신학을 훼손하는 사상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낼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직장선교 42돌 맞아 선교대회·예술제 개최

한직선 “코로나로 침체한 직장선교... 회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 꿈꾸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대표회장 박상수)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한기재 목사)에서 ‘새롭게 도약하라’(사 43:19)를 주제로 ‘장립 42주년 제35회 전국선교대회 및 제37회 직장선교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직선과 전국에 위치한 지역 및 직능 개체별 선교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전국 규모의 대회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새롭게 도약하라’는 전국에서 직장선교회를 감당해오던 회원들이 참석해 그동안 무너진 직장선교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직장선교 부흥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새롭게 도약하도록 결의하자는 의미로 결정됐다.

이날 1부 ‘예배’에선 한기재 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설교에 나섰다. 2부 ‘직장선교 42주년 사례발표 및 예술제’에선 컨퍼런스 전문가인 이준경 목사가 특강을 진행했다. 전주지역 직장선교연합회 5개 지역 및 직능연합회에서 모범 직장선교 사례가 발표됐다. 예술제에선 대전직장선교연합회 KT그룹 기독교선교회 군산직장선교연합회 경기직장선교연합회(플러스찬과이어) 나주직장선교연합회 울산버스가사선교회 보훈기관 선교연합회(교보생명) 등 7개 단체가 출전해 찬양했다. 박상수 대표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로 침체한 직장선교가 회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직선은 ‘모든 직장에 직장선교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를 직장선교 미션으로 설립된 초교파 평신도기독교단체다. 전국 40개 지역 연합회와 42개 직능연합회, 800개 단위 90만 회원을 뒤받치는 단체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위기의 ‘가정 밖 청소년’, 정서적·정책적 지원으로 구제한다

마음으로 보듬는 정서적 지원, 단계 간 유기적 활동 및 경제적 지원 보장도 중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이유로 가정을 떠나 각종 범죄와 사고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있다. 바로 ‘가정 밖 청소년’이다. 이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말한을 해주는 게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깊은 아픔을 마음으로 보듬는 정서적 지원과 지원단체들의 유기적 활동 및 경제적 지원 등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3일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정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족 등의 영향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 돼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말한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들 상당수가 학업을 중단했고 주거 및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 문제, 마약 등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지원단체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원단체들은 소규모 점 조

적으로 활동해 정보가 분산돼 있고 지원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단체간 네트워크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멘토링 교육도 부족한 상태다.

김지선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은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정착금, 자선형 성직원사업 확대 및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처가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김효정 남양주청소년쉼터 소장은 “무엇보다 비행 청소년이라는 시선과 버리고 정서적으로 기댈만한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라 여겨며 아이들을 깊게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격화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바탕으로 한 놀이 중심 문화 속에서 교육이 기획, 운영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표현 활동 보장, 그들의 관심과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종진 목사 11월 부흥성회

010-5255-7777
God Bless 3377@gmail.com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유목주목대학교
-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수) 저녁 한미연합부흥강사단(Korean & American Preacher Association) 연합성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장소 : 광양 새생명교회(이강재 목사) 010-5692-5561
대전 주사랑방기도원(백사랑 목사) 아산은혜기도원(백사랑 목사) 010-2272-9119
서울 위대연합교회(임미향 목사) 010-6201-8374
서울 정로연합회 인제관정로 대표회장 취임식, 장소 : 남서울중앙교회
연세대학교 연신원 정기총회, 장소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관
왜관 금호선교회 부흥사역위원회(대표회장 정대윤 목사) 010-2296-0675
양주 실로암연수원 민족복음화중앙본부 부흥사역원(이사장 이능규 목사, 총재 권미선 목사, 대회장 박형준 목사)
서울 강남순교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오산리 최자실기념교회(원장 김원철 목사) 02-6181-9282
주최 : With부흥사역위원회(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대표총재 장사무열 목사)
성남 은총교회(노균애 목사) 010-3765-0658
송주반석교회(고관준 목사) 010-2391-3004
서울 능려선교회(임은선 목사) 010-4719-5471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영 목사) 010-8331-3431
인천 미라나타복음성당(김도보라 목사) 010-8954-8956
동두천 영광교회(임우기 목사) 010-2628-2002
충주 대혜성 기도원(원장 이승우 목사) 010-9229-9859
오산 아가페힐링교회(채명영 목사) 010-8928-5007
World Mission Worship
19(주) 오후 서울 누가선교회연합교회(김성만 목사) 010-6230-5530
19(주) 저녁 서울 만나교회(이찬순 목사) 010-2191-3131
20(월)~22(수) 부산 새비전교회(조남숙 목사) 010-0667-5321
23(목)~24(금) 전주 새별기도원(원장 박순자, 원목 최충만 목사) 010-3678-5942
26(주) 저녁 서울 영림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7(월)오전,오후 강남 금식기도원(원장 최동민 목사) 교무부장(김진성 목사) 010-3790-2462

제 234차 해외성회 (234th Overseas Assembly)
미국(U.S.A) LA도처(ASIANA202 AM 08:40)
미국(U.S.A) 미주서부지역세계기도성회(pray for all nations)
미주서부지역 총재 김영구 목사
미국(U.S.A) LA 금요연합야생회(준비위원장 백지영목사, 평통 미주성임고문)
미국(U.S.A) LA 광명교회(김영석 목사)
미국(U.S.A) LA Sarns Community Church(Pastor,Sams)
미국(U.S.A) Las Vegas 뉴부흥교회(노은철 목사)
미국(U.S.A) Las Vegas 중앙장로교회(임인철 목사)
미국(U.S.A) Las Vegas → LA → KOREA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ar.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00(에스오)호 Fax. 02)401-7770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43)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건강한 교회가 선교를 잘 한다

교회의 성도 수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인 숫자가 많으면 좋고, 교인 숫자가 적으면 나쁘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과연 교회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일까? 교회의 건강 척도는 교인들의 숫자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고, 선교를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이다. 교인들이 믿음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것은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봉사활동과 성도의 교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교회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둘째는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교리와 목표가 분명한 교회이다. 교회가 명확한 교리와 비전,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로 인정받는 교단과 교파들에 속한 교회들이 신뢰를 받는 것을 보게 된다. 지역교회마다 각

으로 장로회나 교회의 중심이 되는 조직의 리더십 품질과 리더들의 믿음과 책임감을 보면



자의 독특한 목표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이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는 건강한 교회는 교회 리더십이 건강하다. 교회의 리더십은 전통적인 교회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담임목사를 중심

건강한지 알 수 있다. 목회자와 목회진이 교회 구성원들을 이끌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는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다.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사랑이 교회 건강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

는 교회 구성원들의 분쟁이나 분열을 영성으로 화합하게 하였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화합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교인들 간의 문제 해결의 노력들과 서로 돕는 관계를 보면 건강함이 나타난다.

다섯째는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조직 안에서의 봉사과 외부적으로 향하는 사회 봉사로 확대되어 간다. 교회가 자체적인 섬김은 많으나, 외부 지역사회나 국제적으로 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많은 작은 교회의 문제점은 자신들만을 위한 조직이 되어 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외부를 향한 손

아야 한다. 큰 교회라고 해서 성장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세상과 별개의 조직으로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이어야 한다. 물론 선교지 특수한 상황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또한 지역을 뛰어넘어 국제적인 미션 활동 등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그 영향력과 성장이 함께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일곱째는 건강한 교회는 재정도 건강하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상황은 신앙중심의 삶이 재정적인 면에서도

존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한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상태가 건강할 뿐 아니라 재정의 사용에도 투명성을 가지고 예산 수립과 지출, 기부와 자금 모금, 재무 관리를 한다.

여덟째는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은혜로운 예배를 느낄 수 있다.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가질 수 있지만,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러지는지 보게 된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의 질과 다양성, 찬양, 설교, 예배 참여도 등을 통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홉째는 또한 건강한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교회가 구성원들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있어야 한다. 대형교회의 폐단 가운데 하나는 성도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만으로 소통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또한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에 열거한 기준들은 교회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각 교회마다 독특한 상황과 목표가 있으므로, 교회 리더십과 구성원들이 교회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작은 교회라고 선교를 할 수 없다거나, 큰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면 선교를 할 수 없겠지만 건강한 교회는 모두 선교를 잘한다. 모든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내일을 바라보자.

dr.yongcho@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29강 복된 땅, 가나안 (3)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십니다(출 3:8,17).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면서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합니다(출 13:5). 아마도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푸른 초장'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젖과 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젖은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짐승의 젖은 생명을 지키는 양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젖을 많이 만들려면 풀을 잘 먹어야만 합니다. 풀은 자라기 위해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나안 땅은 비만과 주면 그 물을 흡수했다(신 11:11) 나무와 풀에 공급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도 비가 오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풀이 충분하지 않으면 짐승이 살찌지 못하고 젖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이 있어야 젖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풀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벌이 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꽃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꽃이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역시 물이 필요하고 비가 잘 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물', '비'에 목을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만 넉넉하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결코 아

18:2).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이었는데 시간이 400년이 지나면서(창 15:13/ 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사방이 막힌 곳이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었는데 항해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지중해가 여러 모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 지중해는 쓸모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안에는 정복하지도 쫓아내지도 못한 가나안 족속들까지 산재해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완전 사막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하기에 적합한 땅도 아닌 광야를 포함한 일부가 사막인

니었습니다. 북쪽 끝에 위치한 헬몬산으로부터 흐른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웠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흐른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형 특성상 그 요단강 줄기는 점점 더 낮은 지면으로 내려가 사해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사해는 가장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물은 받으나 흘러보내지 못하고 증발해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요단 강줄기와 사해는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관개시설이 열악했던 당시로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헬몬산의 영향으로 그나마 이슬이 내렸기에 농사에 도움이 되었고 가능한 곳은 밀과 보리를 심어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 조건이 맞으면 포도, 무화과, 석류 그리고 올리브 등을 심고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자체적인 지형 특성상 절대로 풍성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비만 잘 내려주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과일도 얻을 수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지형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관건은 '물'이었습니다. 물론 강이 없었던 것은 아

hfamilyfa@gmail.com



브라함이 나온 두 강을 품고 있었던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나 나일강을 품고 있던 풍요의 땅,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지대로 향하는 요단강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강이 없었던 가나안 땅은 늘 물이 부족한 곳으로 기근도 자주 들었습니다(창 12:10, 26:1, 42:5/ 삼하 21:1/ 왕상


12:40,41) 그 땅이 변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실 때도 그리고 모세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적 위치

북쪽으로는 강대국인 아람, 수리아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위부터 아람, 모압, 에돔이 벽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돌아가지도 말아야 하는 애굽이 있었고 미디안이 있었으며 가나안 주변으로는 떠도는 호전적인 유랑민족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 해안에는 강대국

지역이었습니다. 그나마 농사하기 좋은 지역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옥토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푸른 초장이 깔려서 목축을 하기에 넉넉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목축이 가능한 곳도 있었지만 일부였을 뿐입니다.

물론 강이 없었던 것은 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p style="text-align: center;">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 style="font-size: 0.8em;">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Tel. (714)521-0991 Cell. (714)521-4636</p>	<p style="text-align: center;">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 style="font-size: 0.8em;">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p>	<p style="text-align: center;">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 style="font-size: 0.8em;">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Tel. (323)913-4499 Fax. (323)913-4494</p>	<p style="text-align: center;">남가주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 style="font-size: 0.8em;">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Tel. (213)481-2779 www.srcla.org</p>	<p style="text-align: center;">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 style="font-size: 0.8em;">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p>
<p style="text-align: center;">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 style="font-size: 0.8em;">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Tel. (213)380-9377 Tel. (213)380-9079</p>	<p style="text-align: center;">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요</p> <p style="font-size: 0.8em;">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p> <p>Tel. (949)854-4010 www.bkc.org</p>	<p style="text-align: center;">성화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동진</p> <p style="font-size: 0.8em;">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p> <p>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p> <p>회장: 김순관목사</p> <p style="font-size: 0.8em;">Tel. (808)542-2922 www.ikccah.org</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 style="font-size: 0.8em;">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p> <p>Cell. (213)745-9191</p>
<p style="text-align: center;">알칸사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 style="font-size: 0.8em;">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p>	<p style="text-align: center;">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 style="font-size: 0.8em;">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Tel. (323)-737-3009</p>	<p style="text-align: center;">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함성주</p> <p style="font-size: 0.8em;">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p>	<p style="text-align: center;">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 style="font-size: 0.8em;">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Tel. (714)446-6200 Fax. (714)446-6207</p>	<p style="text-align: center;">좋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 style="font-size: 0.8em;">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p> <p>Tel. (714)646-9259 ww.socalsamsungchurch.org</p>
<p style="text-align: center;">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 style="font-size: 0.8em;">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p>	<p style="text-align: center;">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 style="font-size: 0.8em;">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Tel. (310)325-4020</p>	<p style="text-align: center;">코너스톤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 style="font-size: 0.8em;">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Tel. (310)530-4040 Fax. (310)530-8400</p>	<p style="text-align: center;">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 style="font-size: 0.8em;">3416 W. 1st St. LA., CA 90004</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p>	<p style="text-align: center;">하와이 행복한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p> <p style="font-size: 0.8em;">1130 N. Limitz Hwy G100 Honolulu HI 96817</p> <p>Tel. (808)585-1859</p>

2023 Thanksgiving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경배와 찬양팀
 수요 찬양노래교실
 성화 찬양대
 온가족 수양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경배와 찬양

성화장로교회

SANCTIFICATION PRESBYTERIAN CHURCH
WWW.SUNGHWACHURCH.ORG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초록 꿈을 꾸는 젊은이들도
금빛 황혼을 사랑하는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은 은빛이여도
푸른 색깔의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온 모든 시간들이
감사로 채워진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도 생명빛,
찬양도 생명빛,
기도도 생명빛,
나눔도 생명빛으로 살아나는 교회여서
이토록 감사합니다.



담임목사 이 동 진

- 주일 오전예배 11:00
- Youth : AM 11:00(Sun)/PM 8:00(Fri)
- 수요 성경대학 10:30
(2부: 식사와 찬양노래교실)
- Children : Sun 2:00pm
- 새벽기도회 05:30(월~토)
- 영어예배 : Sun 2:00pm(The Well Church)
- 한글학교 : Sun 1:00pm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 (213)447-3118 [158th + Normandie]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 육신의 욕심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마20:17-24) 찬 288장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영적 실상을 알고 살아야 한다. 비록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욕심은 언제든 일어났다.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무거운 일을 앞두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서로 욕심을 품고 있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죄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다. 주님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소원인지 아니면 죄 욕심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분별하여야 한다. 나의 만족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삶에서 얼마나 나타나는가에 하나님 앞에서 가치로 평가를 받는다. 나에게서 주님의 생명의 것이 나타나는 주님의 지체로 살아야 한다.

화 나에게 주신 대속물로 인하여 나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마20:28) 찬 268장

나는 죄가 안에 살아있는 죄인이다. 나는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산다.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고 모시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구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또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때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숨겨두고 있으면 나의 마음은 그 죄들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시들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대속물로 인하여 또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죄의 생각을 품으면 부정하여진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여 죄의 생각들이 씻어지게 하여야 한다. 거룩한 말씀이 죄를 떠나게 한다.

오면 나의 마음은 그 죄들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시들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대속물로 인하여 또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죄의 생각을 품으면 부정하여진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여 죄의 생각들이 씻어지게 하여야 한다. 거룩한 말씀이 죄를 떠나게 한다.

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시니 (마20:29-34) 찬 545장

맹인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낮에도 어둠에서 살아야 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소원은 보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볼 수 있도록 소원하여야 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으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정도

다. 주님을 높이고 섬기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도록 하여 주신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믿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는 귀로 듣고 아는 것과 같이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심을 주님이 알려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의 실상을 생각하라.

목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 21:1-9) 찬 425장

나의 주인이 나 자신인가? 나의 부모와 자녀의 주인은 누구인가? 각자인가? 본분의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주인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으로 평생 알고 주인으로 산다. 그리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하여 산다. 그러한 사상은 마귀가 넣어준 것이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한 사상을 배설물과 같이

부정하게 여겨야 한다. 나는 주인이 사용하시는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주인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실 때 거절한다. 나에게 장차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이다. 주인을 알고 주인의 것을 알고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한다.

금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타락한 내용들 (마21:12,13) 찬 286장

성전은 하나님께 친히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다. 본분의 성전은 이름만 성전이고 내용으로는 성전이 아니다. 매매하는 장터였다. 누가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죄가 그렇게 한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죄는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신을 우상으로 하여 섬기고 살게 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는 성전이다. 그 성전은 장차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다. 성전을 죄의 생각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성전 안에 죄의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다.

토 열매가 없는 실망스러운 무화과나무 (마21:18,19) 찬 524장

무화과나무라고 할 때 그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는 뜻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나무에게 가서 보았더니 열매가 없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 위하여 아들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르고 누리고 살면 주

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난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자신의 선함과 착함과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영에서 나타나는 것을 누릴 때 비로소 나타나는 법이다. 죄의 생각을 누리는 대신에 성령의 생각을 누리는 훈련을 많이 하여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야 한다.

교회음악 이야기(47)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성찬 찬양 "기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일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서로 간에 다른 견해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분열되기까지 하는 일들을 역사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예배와 관련하여 그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변화와 관계없이 예배와 찬양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사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아티클에서 존 파이퍼 목사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주일 예배당에서 커피 마시는 것이 적절하지 재평가해 볼 수 있나?"라는 글과 더불어 히12:28절에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나"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무려 1,500개나 달리며 찬반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만일 당신의 마음이 예배당에서 커피를 즐기는 것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기 전에 와인과 음식을 드셨는가?", "누구나 한 시간 정도는 음식과 음료를 거를 수 있다. 오늘날 성전은 마치 영화관처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커피 마시는 일에 찬성하는 이들은 "난 성전에 커피를 들고 간다. 커피는 집중력을 높여 주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 준다. 방해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게 없다.", "모든 것은 마음의 의도 문제다.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아무도 커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 속에서 신앙에 대한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창 2장 16-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운 가운데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모든 자유로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요소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의 전례는 초기 기독교 교회, 그리고 중세 교회에 있어 아주 중요한 예식(Liturgy)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예식에 중세 시대 서방 교회(Western Church)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의 전환으로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일에 약용되어 엄청난 범죄의 온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성찬의 전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세시대 서방교회(Western Church)에서는 소위 말하는 화체설 "성변화"(transubstantiation)를 주장하며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전환되는 것을 믿으며 그에 대한 예식을 갖게 됩니다. (Canon of Pray). 이것을 통해 신비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거기에 음악이 오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로 부르는 중요한 찬양은 미사 통상문(Ordinary mass) 중 가장 아름답게 작곡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인 "거룩(Sanctus)"입니다. 거의 대부분 작곡가들이 이 곡을 쓸 때는 푸가(Fugue) 기법을 사용하여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곡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예식이 결국 교황청에서는 특수 목적으로 면죄부(indulgence)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사면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탕감해 준다는 터무니 없는 이론을 내세워 결국 돈으로 구원을 사게 된다는 형태로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 제도가 본질의 깨도를 한참 벗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교훈받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로부터 전승받은 성찬에 대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3-26)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나를 기억하라(remembrance of m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이니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서방 교회(Western Catholic Church)와 동방교회(Eastern Orthodox Church)에서는 아직도 이 주장을 펼치고 있고 성공회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인용하여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Remembrance of Me)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드리는 찬양 중 조엘 레니(Joel Raney, 1956 -)가 쓴 "기억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그의 대표적 사순절 칸타타 러브 디바인(Love Divine)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곡은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이끌기에 충분한 선율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음악이 예배의 본질을 벗어나 신비를 강조하는 일에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음악으로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음악은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만 온전히 쓰여야 합니다!

iyoon@wmu.edu

The Bank of Princeton

5.20% APY*

18 Month Certificate of Deposit¹

4.60% APY*

Premier Money Market Account² On Balances Over \$50,000

3.00% APY*

Business Money Market Account³ On Balances Over \$50,000

1.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Offer valid on a 18 Month CD with a minimum opening deposit of \$500 per tax ID. Once the initial 18 Month CD time has elapsed, the CD will roll over for an additional 18 Month CD at the prevailing interest rate. This will continue until customer notifies the Bank within ten (10) days of maturity date. Promotion begins at 9:00AM EST on October 16, 2023;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Early withdrawal penalty may apply; fees may reduce earning.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2.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Exclusive Premier Money Market Account offer at The Bank of Princeton valid on NEW MONEY ONLY. No minimum deposit to open account. No monthly service charges. Interest compounded daily and credited monthly. No minimum balance required to earn interest. ** See rate sheet for current interest rates. Offer begins at 9:00AM EST on April 1, 2023;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See fee schedule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charges.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3.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Business Money Market Account promotion available at Elkins Park,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ONLY. Offer valid on NEW MONEY ONLY and for NEW BUSINESS ACCOUNTS ONLY. New Money cannot be funds held at The Bank of Princeton prior to the opening of this Business Money Market account. Interest compounded daily and credited monthly. ** See rate sheet for current interest rates. Offer begins at 9:00AM EST on June 5, 2023;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See fee schedule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charges.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www.thebankofprinceton.com | 609.921.1700



저희 프린스턴 은행은 한인 고객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자 및 예금 상품 안내를 포함한 궁금하신 사항은 www.thebankofprinceton.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문의로는 플러싱-제리코-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엘킨스파크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Grace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다
시편 34:1

<p>뉴욕주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임병순 46-17 160st #1F Flushing, NY 11358 Tel. (917)767-9191</p>				
<p>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재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p>	<p>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Tel. (718)762-5756 www.hyoshin.org</p>	<p>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 (718)662-6611</p>	<p>뉴욕선교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수/박병섭 67-02 Woodside Ave, Queens, NY 11377 Tel. (718)490-6316 www.lmcony.org</p>	<p>뉴욕좋은교회 담임목사: 정인수 61-72A 223rd Place #23A Bayside, NY 11364 Tel. (646)238-4883</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917)373-3411</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p>	<p>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남일현 141-33 33rd Ave, Queens, NY 11354 Tel. (808)348-4655 www.epcny.org</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 (610)222-0691 Fax. (610)222-0692</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p>	<p>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Tel.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p>	<p>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p>	<p>센터빌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용호 25454 Gum Spring Rd. Chantilly, VA 20152 Tel. (703)581-9235 www.koreanpcc.org</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www.kapcq.org</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 (253)536-6675 www.facomacrc.com</p>	<p>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삼 100 Herrmann Pl. Yonkers, NY 10710 Tel. (914)961-9250 www.nydongsan.com</p>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일 [2023. 11.28]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뉴욕 기도대성회

2030.11.24[금] 오후8시
프라미스교회에서 만남시다!

강사/ 이 광 훈 목사
[세계스포츠선교회 이사장]
[세계엑스포선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주최/ 사단법인 세계엑스포선교회협의회 주관/ 뉴욕 기도대성회 준비위원회 협력기관/ 뉴욕지구한인목사회